Life of Youth



청년생활

11

1963

전국의 청년들이 철도 전기화에 일떠섰다

철도의 전기화를 촉진시킬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의 공동 결정은 지금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새로운 천리마 대진군에 일떠선 우리 나라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무한히 흥분시키고 있다.

이미 교통, 운수 부문의 건설자들과 전국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해주—하성간 철도 부설 공사를 단 75일간에 완수 한 그 기세로 이 공사를 훌륭히 담당 수행할 것을 솔선 결의해 나섰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평양 운수 설계 연구소 청년 설계원들은 현지에 나가 로동자들과의 토의를 거듭하여 최단 기간 내에 설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500 톤의 동과 수천 메터의 고압 까벨선을 절약할 수 있는 막대한 예비를 찾아 냈다.

원산 철도 공장 청년들은 7 개의 차량으로 편성된 전차선로 조립용 렬차 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철도 전기화에 필요한 동선을 해결하기 위하여 갑산 광산, 덕현 광산 민청원들은 매 동광에서 50~100 톤의 동을 증산하라는 당의 호소를 관철하기 위하여 궐기하였다.

남포 제련소 청년들은 동제련 실수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공장 기업소 청년들은 동을 절약하기 위하여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 청년들은 전기 기관차용 견인 전동기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철도 주변의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자기 구간에 전주를 세우고 역구내를 확장하기 위한 준비 사업에 떨쳐나섰다.

오늘 이 공사에 동원된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명년 8.15까지 예견된 평양—신의주간 공사와 11월까지 예견된 평양—신성천간 공사를 훨씬 앞당길 비등된 열의로 충만되여 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1
(170)
1963

차 례

표지 1 면. 《채취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 응걸 그림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더욱 심각하여 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 멀리 리탈하여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 깊이 굴러 떨어지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과 평화 위업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 속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적들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한 생활력을 절실히 체험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반대하며 그 통일을 진심으로 념원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오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절박한 공동의 투쟁 과업이라고 인정한다.

1,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사회주의는 오늘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는 이미 구라파와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승리하였으며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바로 문앞에 있는 섬나라 큐바에서도 승리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구의 3 분의 1, 지구 륙지의 4 분의 1, 세계 공업 생산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도 사회주의 진영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서 나아가고 있다.

세계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비상히 장성하였으며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위대한 승리이다.

국제 로동 계급이 자본의 철쇄를 끊고 쟁취한 이와 같은 전 세계사적 승리는 결코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맑스와 엥겔스의 위대한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국제 로동 계급은 허다한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뚫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왔으며 원쑤들과의 결사적 투쟁을 통하여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였다.

자본가들과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자기들의 가장 무서운 원쑤로 선포하였으며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진보적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온갖 흉악한 원쑤들을 반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투쟁을 담당하여 왔다.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많은 파란과 곡절을 겪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때로는 뼈 아픈 실패도 하였으며 고통스러운 퇴각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투항주의자들과 변절자들이 나타나 혁명 대렬을 흐리게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실패에서 락심하지도 않고 승리에 도취하지도 않았으며 비겁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건 말건 계속 혁명의 붉은 기치를 고수하였다.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손에 무기를 들고, 때로는 철창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불사조와 같이 투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국제 로동 계급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본의 진지를 끊임없이 공격하였으며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위대한 혁명적 력량으로 자라났다.

력사 상 처음으로 로동 계급이 자기의 주권을 수립하였던 파리 콤뮨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한 파리 로동 계급의 70여 일 간의 결사적 투쟁 끝에 실패로 돌아 갔다. 콤뮨은 야만적 백색 테로에 의하여 피바다 속에 잠겼다. 그러나 파리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 업적과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써 얻은 고귀한 교훈은 국제 로동 계급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최초의 위대한 승리는 레닌의 령도 밑에 로씨야의 로동 계급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상으로부터 산 현실로 전환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의 강력한 보루를 가지게 되였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궐기시켰으며 오래 동안 《력사 밖에 서 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 오던 수억만》(레닌)<1> 동방 인민들을 각성시켰다. 혁명적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은 동방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과 결합되여 제국주의에 더욱더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교살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나 쏘련 인민은 레닌당의 령도 밑에 내외의 원쑤들의 간악한 공격을 물리치고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였으며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나아갔다. 원쑤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은 위대한 혁명의 기치—레닌주의 기치 밑에 강대한 력량으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국제 자본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제국주의—파시즘을 력사 무대에 등장시켰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국가 쏘련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격대로 내몰았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혁명과 반혁명 간의 치렬한 전투가 진행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세계의 도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반파쑈 전선의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흉악한 원쑤들과의 결전에서 고귀한 피를 흘렸다.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피압박 근로 대중을 령도하여 장구한 기간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략탈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영웅적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독일 파시스트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완전히 격파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말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는 국제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근로 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분쇄되

였으며 세계의 많은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였다.

위대한 중국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 나 세계적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진영에 대치하는 강대한 진영을 형성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력사적인 대사변으로 된다. 이때로부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반석 같은 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력량은 점차 인류 사회 발전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인류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그것은 국제 로동 계급과 국제 자본가 계급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의 결과이다. 그것은 100여 년 동안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온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총화이며 장구한 기간에 걸친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근로 대중의 피어린 투쟁의 위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더욱 확증하여 주었다.

사회주의 진영은 그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며 그 어떤 국제적 조약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블럭》도 아니다. 그것은 국제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 발전 과정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승리한 로동 계급들은 자기들에게 고유한 계급적 련대성의 요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하나의 진영에로 결합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이것은 국제적인 사회주의적 련대성의 긴밀한 뉴대와 공통적인 리해 관계 및 목적의 통일로 하여 단합되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인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협동체이다.》(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2>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새 형의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의 계급적 동맹체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은 이미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이 진영에 망라된 형제 국가 인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들의 평화 위업과 혁명 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통일되고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을 결속시키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 추동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은 전반적 국제 정세를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킨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강력한 타격으로 되며 모든 반동 세력들을 전률케 한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각개 격파하려는 음흉한 술책에 더욱더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리간시키고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며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에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리용하고 있다. 찌또 도당은 수정주의에 떨어진 첫날부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을 계통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오늘 일부 사람들은 찌또 도당을 적극 비호하면서 점점 더 사회주의 진영에 혼란을 조성하며 이 진영을 분렬시키는 위험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찌또 도당의 책동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국제 로동 계급과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그들이 피로써 쟁취하였으며 사수하여 온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사회주의 진영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2,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위력은 그 대렬의 통일에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합된 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실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은 공산주의 운동의 힘을 몇배로 증대시킨다.

단결은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로동 계급은 력사 무대에 등장한 첫 시각부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어려운 투쟁에서 자본가 계급을 타승할 수 있었다. 오늘도 사회주의 진영은 통일된 대오로 나아감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 사회주의 진영은 내부적 의견 상이로 하여 사실 상 전일적인 대오로, 단합된 력량으로 나가지 못 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면전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고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형제당들과 형제 국가들을 비방하며 공격하는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상 상의 론쟁을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고립시키며 배제하기 위한 책동들이 감행되고 있다. 군중들과 다른 형제당들과 국제 단체들까지 동원하여 맑스-레닌주의당들과 형제 국가들을 반대하는 소란스러운 깜빠니야가 전개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혁명적 동지와 계급적 원쑤들을 분별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적들에게는 더욱 접근하고 《친선》과 《호의》를 표시하면서도 도리여 계급적 형제들과 혁명적 동지들에게는 원쑤처럼 대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을 발로시키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생사 고락을 같이 하여야 할 형제당,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뒤통수에 이러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오직 제국주의자들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등지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의 《의견 상이를 리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떠벌리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기정 사실로 묘사하기에 서두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운명과 세계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이 엄중한 사태를 수수 방관할 수 없다.

오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진영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장구한 투쟁의 력사적 전취물을 옹호하는 것이며 세계 혁명의 기지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의 사회주의 국가나 혹은 사회주의 진영에 망라된 일부 국가들만을 옹

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쏘련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시금석으로 평가되였다.

지난 시기 쏘련은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지원하였다.

쏘련은 세계 혁명의 유일한 기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쏘련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곧 세계 혁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신성한 국제주의적 행동으로 되였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였다.

암담한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쏘련을 우러러 보았으며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라는 구호 하에 쏘련 인민에 대한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은 13 개의 나라로 확대되였다. 이리하여 쏘련과 함께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같이 국제 혁명 운동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직 <돌격대>가 하나 밖에 없었으며 거의 단독으로 이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물론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오늘에는 전혀 사정이 달라졌다.

중국과 조선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야와 웽그리야에 이르기까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돌격대>들이 출현한 오늘 우리 당은 투쟁하기도 용이하게 되였으며 또한 일도 흥겹게 되고 있다.》<3>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이 장성됨에 따라 세계 혁명의 기지도 확대되였다. 오늘에 와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세계 혁명의 기지로 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쏘련과 함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인 행동으로 된다. 오직 이러한 태도만이 혁명의 승리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세계 혁명을 가일층 추진시키는 길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도 있고 오래지 않은 나라도 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가 오래지 않은 나라보다 국제 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 크고 혁명을 먼저 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피착취 대중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결코 어느 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대표하며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발전된 나라라 할지라도 결코 한 나라의 위력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역할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이건 오래지 않은 나라이건, 경제가 발전된 나라이건 뒤떨어진 나라이건 할 것 없이 다 같이 혁명적 립장에서 견결히 노력한다면 자기들이 차지한 위치에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례컨대 오늘 큐바는 서반구에서의 첫 사회주의 국가로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어떤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큐바의 위치와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단합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은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저러한 당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가 크며 방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라는 것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형제당, 형제 국가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단결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몇몇 나라를 떼여 버린다고 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듯이 행동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나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별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는 그릇된 생각의 구체적 표현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어느 한 특정된 나라의 혁명의 성과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가 다 같이 귀중하다.

우리는 국제 로동 운동의 영광스러운 전취물인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고 그것을 더욱 반석 같이 다지며 그 토대에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지를 공고히 하는 것은 앞날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만약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위력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세계적 깜빠니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국제 반동 세력은 중국 혁명의 승리를 악의에 차서 증오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과 한짝이 되여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무근거하게 중상 비방하며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사실 상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까놓고 말하여 사회주의 진영 인구의 3 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무슨 사회주의 진영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비단 큰 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나라이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은 용허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장구한 혁명 투쟁의 결과에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내여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할 대신에 어제는 한 나라를, 오늘은 다른 나라를, 래일엔 또 그 어떤 다른 나라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가져 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사분오렬시킨다는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는가.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것은 그 한 나라에만 관계되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운명과 관련되며 세계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적 문제이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라도 더 많이 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이 계속 확대될 것을 념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하물며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를 떼여 내버리려는 행동을 어찌 용허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보다 두 나라가, 12 개 나라보다 13 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일부 사람들은 개별적인 나라들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떼여 버리려고 하는 한편 제멋대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일치하게 규탄된 찌또 도당과 같은 제국주의의 사환'군을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 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황당한 일이다.

어느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주관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나라를 사회주의 진영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임을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 《사회주의 칭호》를 주고 이를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 들이려 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어느 한 개인의 롱락물로 될 수 없다.

분렬은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통일은 수호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에 기초하여 통일되여야 한다. 이 원칙을 떠나서는 어떠한 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

혁명의 길에서 물러 나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당들은 어떠한 경우에 부닥쳐도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혁명의 전진 운동을 가로막지는 못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전일적인 대오로 굳게 단합되여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3, 형제당, 형제 국가들은 호상 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일한 사상과 공통된 투쟁 목적으로 단합되여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 및 성명은 형제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본질과 원칙들을 맑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선언과 성명은 형제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및 동지적 협조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범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장구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력사적 경험들을 총화하여 형제당들이 일치하게 내린 결론이다.

바로 이 규범들은 각국 당들의 단결의 기초로 되며 행동 통일의 규준으로 되고 있다. 이 규범들의 정당성은 이미 생활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형제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호상 관계의 규범들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진실로 자원적이고 의식적이며 공고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규범들이 위반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형제당들과 형제 국가들 사이에는 불피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해치게 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 존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적 지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상급과 하급의 관계란 있을 수 없다. 즉 누구는 어떤 중앙적 위치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고 집행하는 관계란 있을 수 없다.

어느 한 당이 다른 당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 동지적으로 지지하며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최근 년간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형제당들 간에 합의된 이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들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말로는 누구나 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원칙들을 준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형제당들 간의 관계에서 중앙 집권적 원칙과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 집권적 원칙은 개별적 당들의 내부 생활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 원칙은 결코 형제당들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한 당 내에서는 당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복종하며 모든 당 단체는 당 중앙 위원회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만약 개별적 당들의 이 내부 생활 규범을 형제당들 간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그것은 기성된 권위를 가진 어느 한 당이 기계적 다수를 규합하여 자기의 일반적 의사를 다른 당들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 자각적이며 자원적인 단결은 없게 되고 대국주의적 오만과 관료적 전횡이 지배하게 되며 호상 간의 불신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형제당들 간에 의지와 행동의 통일은 기할 수 없게 된다.

본래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다. 오늘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불평등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형제당들 간의 호상 관계에 중앙 집권제 원칙을 적용하려는 주장은 이미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들에서 배격되였으며 파산 당하였다.

오늘 각국 형제당들은 국제 공산당이 존재하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세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계 혁명 운동은 모든 대륙에 걸쳐 미증유의 규모와 다양한 형태로 확대 발전되였으며 정세는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 지고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세련되였으며 유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한 《중앙》으로부터의 유일 지도는 할 수도 없으며 또 필요도 없게 되였다.

이것은 물론 각국 형제당들이 호상 간에 아무런 련계도 없이 분산적으로 혁명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에 립각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지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국 형제당들은 공통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적인 전략과 전술을 규정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내린 평가와 결론들을 일치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형제당, 형제 국가들 간의 계급적 련대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형제당들 사이에서는 의견 상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각국 형제당들이 활동하는 조건과 구체적 임무가 각이한 데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혁명에 대한 잘못된 립장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형제당들 간에 의견 상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실과 원칙에 근거하여 진지하고 인내성 있게 동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형제당들 간에 합의된 원칙들을 자의로 저버리고 의견 상이 문제를 각종 강압의 방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자기 의사에 복종하지 않는 형제당들에 대하여 덮어 놓고 《교조주의》, 《종파주의》, 《민족주의》, 《모험주의》, 《호전 분자》 등의 감투를 씌우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그들은 당들 간의 사상 상의 론쟁 문제를 점점 더 국가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로 확대시키고 있다. 형제 국가들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제적, 기술적 협조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 싶이 하고 있다. 대사를 비롯한 외교 일'군들과 보도 일'군들을 빈번히 추방하고 있다. 형제 국가와 국교를 단절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무엇 때문에 형제당들 간의 사상 상의 론쟁

문제를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사태를 계속 악화시켜야 하겠는가? 제국주의 나라들과도 국가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어떻게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리득을 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며 손실을 보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계급적 립장을 떠나거나 공산주의적 도덕과 의리를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의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련대성에 의하여 굳게 련결되여 있다. 계급적 동맹의 원칙을 떠난다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각국 형제당들은 피부 색갈이나 인종 및 지역 별이나 나라의 발전 수준 등 표징들에는 관계 없이 오직 계급적 전우로서 평등한 립장에서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이 초보적 규범도 유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세아 당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 민족이나 인종의 《우월성》과 특출한 역할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의 계급적 형제들을 멸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형제당들을 모욕하는 거만한 태도이며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민족 배타주의적 행동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락후한 아세아》에 관한 관념이나 《우월한 민족》, 《렬등한 민족》에 관한 관념은 이미 오래 전에 규탄되고 매장된 낡은 유물들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줴버려야 한다.

형제당, 형제 국가들 간에서 일방이 타방의 내정에 간섭하며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행위는 호상간의 정상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근원으로 된다.

어떤 사람들은 원조에 빙자하여 형제당, 형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동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호상 지지하며 호상 협조하는 것은 그들의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이 호상 원조와 협조는 또한 어느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당, 형제 국가들에 다 같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혜택을 베푸는 것도 아니며 장사'군과 같이 치부를 해 두기 위한 것도 아니다.

원조에 대하여 자랑하기만 좋아하며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 조건 있는 《원조》, 내정 간섭을 전제로 한 《원조》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서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매개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공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당 대회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며 한 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동 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당들에 내리 먹이려 한다.

한 당의 결정이나 조치들은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며 결코 다른 당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더우기 소위 《개인 미신 반대》 운동을 다른 당들에 내리 먹이려 하며 그것을 간판으로 하여 형제당, 형제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 나라들의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바로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으로 하여 수 많은 형제당들이 공연한 《열병》을 겪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다른 형제당들의 대내외 정책들을 규정하여 주며 그 실천을 통제하

려 한다. 다른 당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형제당들에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

지난 시기 일부 동지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 건설 정책에 대하여서도 응당한 리해와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5 개년 계획은 환상》이라느니, 《기계 제작 공업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느니, 《농업 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농기계가 없이 어떻게 농촌 경리를 협동화할 수 있겠는가.》하는 등 남의 실정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하였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결심 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큰 손실을 받은 것은 없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일정한 후과를 가져 올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 않다.

각이한 환경과 력사적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에서 어느 한 당의 정책이나 경험이 다른 모든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간에 서로 믿고 성과를 같이 기뻐하며 형제당들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응당한 리해를 표시하며 형제당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허심하게 서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 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은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달성하는 형제당들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형제당들을 의심하며 형제당들이 자기의 《훈시》대로 움직이는가, 자기의 경험을 그 대로 옮겨 놓고 있는가 않는가에 대해서만 눈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형제 나라 출판물들과 방송들에서 어느 한 당의 결정들과 문헌들을 의무적으로 보도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형제 나라들에서 어느 한 당의 력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서까지 감독하려 하며 심지어는 어느 한 나라의 영화를 잘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도 따지며 간섭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벌써 평등과 호상 존중의 정신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대국 배타주의의 표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만약 형제적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이상과 같이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새형의 국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며 일방적인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표면 상으로는 호상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진행하며 말로는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력사 상 처음 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관계이다.

이 형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심병》을 없애며 대국 배타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독자성을 상실하고 다른 당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도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자기의 주체성도 없이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남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며 국제주의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기 나라 혁명 사업에 불가피적으로 손실을 가져 오게 되며 국제주의적 단결을 약화시키게 된다.

레닌은 《**각국의 공산주의적 로동 운동의 국제적 전술의 통일은 결코 다양성의 제거와 민족적 차이의 말살을…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들(쏘베트 주권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을…민족적 및 민족—국가적 차이에 옳게 맞추어 옳게 적용하는 것을 요구»<4>한다고 지적하였다.

각국 당들은 독자성을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혁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개 당들은 자기 자신의 맑스-레닌주의적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령도하며 자국 인민 앞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반드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정책을 작성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물러 서도 안되며 또한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형제당들의 정책과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도 안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형제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경험들이 그 나라들의 어떠한 력사적 발전 단계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것을 적용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의 오유를 피치 못 할 것이다.»<5>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켜서는 안 된다. 교조주의를 범한다면 결국 그 당은 현실과 인민 대중으로부터 리탈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앞에서 지닌 자기의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각국 당들이 주체성과 독자성을 견지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혁명 발전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각국 당들이 창조한 경험들에 대하여는 매개 당들이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어느 특정한 당의 경험만이 유익하고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당에서 창조된 경험은 배울 것이 못 되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지난 년간 레닌과 그의 위업을 계승한 쓰딸린을 수반으로 한 쏘련 공산당의 령도 하에 쏘련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쌓아 올린 력사적 경험은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이 력사적 경험들을 부정하고 쏘련 인민이 걸어 온 지난 시기를 《암흑의 시기》로 묘사하는 것은 곧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10월 혁명의 길에서의 리탈을 의미한다. 찌또 도당의 소위 《유고슬라비야의 길》은 이의 한 가지 실례이다.

과거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의 경험과 함께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창조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들과는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과 력사적 전통과 민족적 풍습 등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특수성들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것들이다.

식민지 예속 국가였던 나라들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특히 피압박 민족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것으로 된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서면 설수록,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이 다르면 다를수록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더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될 것이다.

각국 당들은 자기 나라 혁명 발전의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함으로써 다 같이 맑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집체적으로 기여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오직 매개 형제당들과 형제 국가들의 의식적이며 책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히 평등한 립장에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4,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할 공동의 임무를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는 동시에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을 공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매개 사회주의 국가를 강화하며 그 힘을 단합함으로써만 전체 진영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자기 나라의 사회 정치 제도를 튼튼히 다지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미 전취한 사회주의 진지를 백방으로 공고히 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를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는 어느 당도 자기 인민과 국제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자체의 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당의 령도 하에 자기 나라 인민의 무궁 무진한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기본 담보이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를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호상 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요인은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만약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의 원조에만 의존한다면 혁명도, 사회주의 건설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립장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자력 갱생의 원칙에 의거하여야만 형제 국가들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실로 국제주의에 충실한 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우리 혁명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자체의 힘이다. 우리는 주로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6>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창설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각이한 사회 력사적 조건과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어떤 나라는 과거로부터 비교적 발전된 경제를 유산으로 넘겨 받았으

며 어떤 나라는 과거에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였던 탓으로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은 나라들에서 하루 속히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건설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국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킬 수 있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야 나라의 정치적 독립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발전된 현대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우에서만 형제 국가들과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호상 협조와 분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물을 편견 없이 있는 그 대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극히 명백하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력 갱생과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을 극력 반대하며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편향》이요, 《페쇄적인 경제》요 하는 딱지를 붙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적으로 유해로운》 로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진상을 외곡하면서 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마치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조와 원조에 모순되는듯이 사태를 꾸며대고 있다.

그들은 그 무슨 《생산 전통》이니 《수익성》이니 하면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종합 경제는 오직 큰 나라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한된 몇 개의 부문만 발전시켜야 하며 항상 기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매우 괴이한 론리이다.

묻노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보장, 이 기초 우에서의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의 원칙이라면 어찌하여 이 원칙이 경제 분야에서는 《위험하고》 《유해로운》것으로 된단 말인가?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들의 평등권과 자주성의 원칙을 유명 무실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발전되고 다방면적인 현대적 공업과 현대적 농업을 건설하지 않고는 경제와 문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자립 경제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 사회주의 국가들의 《통합 경제》의 창설을 제창하고 있다. 그들은 《통합 경제》가 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협조의 가장 리상적인 형태이라고 한다. 그들은 《통합 경제》의 간판 밑에 형제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없애고 이 나라들의 민족 경제의 발전을 통제하며 그것을 다른 나라 경제에 얽매인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통합 경제》의 실시는 매개 나라의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없게 하며 인민들의 창발성을 마비시키며 경제 발전에 혼란과 침체를 가져 오게 할 것이다.

《통합 경제》의 실시는 결국 매개 사회주의 나라 경제를 어느 한두 나라 경제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며 어느 한두 나라 경제 발전의 리익에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립성이 상실되면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권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독립과 자주권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국제적 협조도 사실 상 존재할 수 없다.

자립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는 계속 락후한 처지에 있어야 하며 과거의 농업 국가는 계속 농업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 수준에서의 차이는 퇴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질 것이며 발전된 나라에 대한 락후한 나라들의 의존 상태는 의연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제국주의의 억압 하에 있는 나라의 인민들에 대하여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

게 될 것이다. 세계 인민들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다.

만약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자립 경제 로선을 부인하고 계속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며 락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불피코 식민지 예속 국가와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외곡된 표상을 주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 이후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 하고 남에게 예속되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혁명을 하자고 하겠는가.

사회주의 진영은 오직 어느 한두 개 나라만이 아니라 전체 나라가 다 같이 발전될 때에 더욱 위력하여질 수 있다.

그러자면 공산주의자들은 뒤떨어졌던 나라들의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먼저 혁명을 수행하고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후에 혁명을 하고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 대렬에 들어 선 나라들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락후성을 퇴치하고 발전된 선진 국가의 수준에 올라 서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자주성을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진정으로 반석과 같이 다질 수 있으며 세계 혁명의 수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에 압도되여 감히 침략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뒤떨어졌던 형제 국가가 하루 속히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발전된 강국으로 전변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적극 받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행동이다.

사회주의 각국 당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이러한 립장에 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철옹성 같이 다지기 위하여서는 역시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방력을 다 같이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평화와 제 인민들의 안전의 수호자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중에 장악된 무장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방위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강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 하에 진행되든 사회주의 진영의 무장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행동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치도 어느 한 나라의 무장력만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하고 있으며 어느 한 나라의 수중에 장악된 최신 군사 기술만이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듯이 선전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보위에서 다른 형제 국가들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당 하여야 할 호상 협조도 잘 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세계 평화에 대하여 진심으로 념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립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무장력과 최신 군사 기술은 그것을 소유한 당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제어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를 어느 한 나라의 군사력에만 의거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는 전체 사회주의 국가의 무장력에 의거하여야 하며 어느 한 최신 무기에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방위함에 있어서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정한 초소들을 수호하고 있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자기의 초소를 지키는 데서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만 의거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인민들을 반대하여 《전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군사력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동시에 자체의 힘과 가능성에 최대한 의거하여 적들의 어떠한 군사 전략적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호상 협조하여 다 같이 최신 군사 기술을 소유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동으로 제국주의에 대항하며 집체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국제주의적 련대성과 전투적 단결의 립장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개 나라 당들은 또한 이미 전취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고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로농 동맹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대중에 대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이 약화되는 곳에서는 부르죠아 사상이 머리를 들게 되고 대중의 계급적 각성이 마비된다.

지주, 자본가는 계급으로서 청산되였으나 그의 잔재는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 관습들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각종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침투시키며 이 나라들에서 청산된 착취 계급의 잔존 세력들과 낡은 사상 잔재 및 낡은 생활 풍습들에 의거하여 각종 부르죠아 사상 독소와 퇴폐적인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변질시키고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계급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자유》요, 《민주주의》요, 《준법성》이요, 《인도주의》요 하면서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적 혼란을 조성하며 계급 투쟁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적대 계급이 청산되였다》느니, 《정치범이 없다》느니, 《진압의 대상이 없어졌다》느니 하는 구실 밑에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자기 사명을 다하였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주의 진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태도이다.

물론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회 계급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 났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계급 투쟁이 없어졌다거나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더는 필요 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험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들을 옳게 교양하지 않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킬 때에는 부르죠아 사상이 만연되여 사람들이 안일 해이하여지고 부화 방탕하게 되며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며 내외의 원쑤들에게 파괴 활동의 틈을 지어 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제도 자체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계속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지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계속 꾸준히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지며 그 힘이 단합될 때에 사회주의 진영은 비할 바 없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성새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이다.

5,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종국적 목적은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는 데 있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세계 혁명의 구성 부분이다.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세계 혁명이 종국적 승리에로 가는 과정이다.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공고화하지 않고서는 세계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 수 없으며 세계 혁명의 승리를 떠나서는 개별적 나라들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 혁명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은 불가분리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일국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와 사회주의 건설을 자체 목적으로만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일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자기 민족적 과업이 아니다. 승리한 나라의 혁명은 자체를 자기 만족적인 단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로, 수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이. 쓰딸린)<7>

만약 자기 나라 혁명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세계 혁명을 잊어 버린다면 그것은 혁명 투쟁을 도중에서 멈추는 것으로 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위업으로부터 물러 서는 것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을 완수함으로써만 자기에게 부과된 력사적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자기 나라 인민과 함께 국제 로동 계급과 전 세계 피압박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혁명의 기지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 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도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세계 혁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범을 통하여 세계 인민들을 혁명 투쟁에로 부단히 고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잘 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통하여 세계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권이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수중에 있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실업과 빈궁이 근절되고 로동과 휴식과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경제,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고

있는 사실들을 뚜렷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사회에 고유한 전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과 인민들의 공산주의적 도덕과 고상한 풍모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킬 것이며 그들을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을 다만 경제적 경쟁에만 국한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개인 향락이나 누리게 되면 다 되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차이를 모호하게 하고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릇된 표상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모범의 의의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경제적 경쟁에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저절로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 경쟁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승리는 아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혁명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사회 발전의 주객관적 요인의 작용의 총체적 결과로서 일어 난다.

혁명 정세의 성숙과 혁명의 수행은 우선 그 나라의 내부적 발전의 산물이며 그 나라 인민들의 각성 정도와 조직성에 달려 있다. 이러저러한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인민들 자체에 의하여 준비되며 수행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해 줄 수 없다.

경제적 경쟁이 가지는 의의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 계급 투쟁의 립장에서 물러 서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면 세계 인민이 자연히 다 해방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희생을 내면서 혁명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상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전횡을 계속 감수할 것을 설교하는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대한 지지와 원조를 회피하려는 것이며 세계 혁명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다.

희생이 두렵다고 하여 투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제 가도 해방과 독립은 얻지 못 한다.

혁명 투쟁에서의 희생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착취와 무권리, 실업과 빈궁,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매 시각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보려고 하지 않는가. 인민들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제국주의 야수들의 박해와 탄압에 의하여 철창 속에서 신음하며 형장에서 무참히 쓰러지고 있는 것을 어찌 바라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세계 혁명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레닌은 승리한 나라가 《모든 나라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원하며 고무하기 위하여 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으로 실행》<8>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세계 혁명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누구와 동맹하여야 하며 어디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야 하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 로동 계급과 동맹하여야 하며, 피압박 인민들과 동맹하여야 하며, 피압박 민족들과 동맹하여야 하며, 전 세계의 모든 진보적 력량과 동맹하여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제국주의를 최대한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단합된 력량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 제국주의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형태의 투쟁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

국주의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력량을 적극 쟁취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로동 계급에게 계급적 련대성과 전투적 지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철쇄를 반대하는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혁명 수출의 음모를 저지시키고 파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평화의 위업을 위해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평화를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걸음마다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 각층 세력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세를 제국주의에 더욱더 불리하게,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킬 것이다. 오직 이러한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사회주의 진영은 명실 공히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이 좋게 지내며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원하지 않으며 전쟁의 위험성에 빙자하면서 그들의 무장 투쟁을 반대하는 것은 인민들의 혁명 위업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자들 앞에 투항하는 것이다.

세계 혁명을 지원하지 않는 현상과 함께 《원조》의 구실 하에 세계 혁명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비계급적인 현상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어데까지나 원조를 받는 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 진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제공되여야 한다.

이러한 립장에서 리탈된 《원조》는 진보적 력량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반동 세력을 돕게 될 것이며 혁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며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군사 원조를 포함하여 각종 원조를 이러저러한 나라들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계 혁명을 해치는 행동이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항상 투쟁하는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이 세계 혁명 운동 발전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사상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만 만족하면서 이미 쟁취한 혁명의 성과를 누리기만 하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 간다면 어떻게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 혁명의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남보다 일을 적게 하고 자신의 안일과 향락에만 급급하게 한다면 그들은 계급적 형제들의 고통도 망각하게 될 것이며 세계 혁명의 리익도 안중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며 공산주의자들의 의리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륭성 발전과 전 세계 근로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계속 긴장하여 투쟁해야 하며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세계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인류의 3 분의 2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 없다. 아직도 적지 않은 인민들이 식민주의의 치욕스러운 멍에를 벗어 던지지 못 하고 있으며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하여서도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올가미를 들씌우고 있다.

만약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면, 국제주의자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르는 척 할 수 없

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전 세계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목전의 안일을 추구하여 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혁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혁명을 하는 것도 방해하고 있다.

자기도 혁명을 안 하고 남도 못 하게 하면 도대체 누가 혁명을 하겠는가. 그 누구도 혁명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해방되지 못한 인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곤난과 시련 앞에서 동요하며 혁명에 권태증을 느끼고 대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혁명을 해야 할 사람들은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은 전 세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혁명 운동을 더욱 전진시켜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 성원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 인민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인민들의 지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거대한 힘으로 되며 원조로 된다.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 체계에 타격을 주며 그 진지를 약화시킨다.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으로 된다.

자본주의 국가 인민들이 자국 정부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파탄시킨다면 이것은 그 나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커다란 지원을 주는 것으로 된다. 세계 각국 인민들의 완강한 공동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수족이 얽어매여지고 평화가 유지 공고화된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소동이 벌어졌을 때마다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모든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지하고 옹호하여 나선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었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가렬한 전쟁에서 세계 인민들이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어떤 나라도 전 세계 근로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호상 지지하고 원조하는 데서 우리의 힘은 배가될 것이며 혁명의 위업은 촉진될 것이다.

전 세계 근로 인민들과 피압박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더욱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6,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강력한 기지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다. 세계 인민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륭성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으며 거기에 자기들의 사활적 리해 관계를 결부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을 때에 강력하고 위대하며 진보적 인류 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내부적 의견 상이로 하여 엄중한 국면에 처하여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이미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과 관련된 원칙적 의견 상이로 발전하였다. 이 의견 상이는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단순한 투쟁 방법 상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근본 문제와 관련되여 있으며 어떤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전략 전술의 전반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오늘 문제는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느냐 하지 않느냐,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현재의 론쟁은 결국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간의 투쟁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정세가 변하였다》는 구실 하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거세하고 있으며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공공연히 유린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그들에게 덮어 놓고 양보하며 순응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을 싫어하고 포기하고 있으며 각국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 끌어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그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혼란과 긴장성을 조성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를 망신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로동 계급이 장기간 피와 땀으로 쟁취한 위대한 진지를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를 그 대로 내버려 둔다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도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대두한 우경 기회주의를 제때에 극복하지 않는다면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에 심대한 손실을 가져 오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혁명 로선과 기회주의 로선은 량립할 수 없다.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지금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전진시킬 수 없으며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긴절한 혁명 과업이다.

오늘 수정주의와의 투쟁은 개별적 당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관계되는 문제이다.

현 정세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랭정하게 고찰하며 심사숙고하여 자기의 정확한 립장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문제는 응당 우리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조성된 난국은 결코 몇몇 당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타개될 수는 없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서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방법과 형태는 매개 당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방법과 형태를 취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당이 자체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에서 이 투쟁에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선 모든 당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수정주

의자들의 활동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수정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며 수정주의가 군중 속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수정주의에 끌려 들어 가지 않도록 하며 전체 공산주의자들과 군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켜 전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확고히 서게 하며 공산주의적 혁명 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매개 당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수정주의를 남에게 내리 먹이려는 행동을 단호히 제지하며 이를 따라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의 기성된 권위를 리용하여 도처에서 수정주의를 범람시키며 다른 당들에 자기 뒤를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정주의적 립장을 지지하고 협조하여 나설《동료》들을 모으기에 급급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하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좌지우지하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내리 먹이는 것을 받아 들이지 말아야 하며 수정주의자들을 따라 가지도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자기의 원칙적 립장을 굽혀서는 안 되며 항상 독자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와 각국 당 내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을 광범히 전개하며 사상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투쟁의 예리한 무기이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결국은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근본 립장과 관련된 사상 정치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떤 강압적 방법이나 사태를 어물어물 덮어 두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는 비판과 자기 비판, 심각한 사상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기 운동의 약점들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9>라고 레닌은 교시하였다.

우리는 사상 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들과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더욱 단련시키며 군중을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준비시킬 수 있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립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에서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나 개별적 당에서나 공산주의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그들에게 《종파》니 무어니 하는 감투를 씌우며 보복하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과오를 시정할 용기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비판 사업과 사상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의 계선은 확연히 갈라질 것이며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수정주의는 파산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건전한 토대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 과정에서는 락오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혁명 대렬은 그 순결성이 보장됨으로써 더욱 강화될 것이며 계속 장성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수정주의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자기 대오를 부단히 혁명적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경험은 오직 혁명 대렬이 유일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결속될 때에만 강력한 전투적 부대로 될 수 있으며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온갖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와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승리하여 왔다.

이 투쟁 과정에는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혁명적 로선을 견지하여 난관들을 극복하고 자기 대렬을 작은 것으로부터 큰것으로, 약한 것으로부터 강한 것으로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한때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도적 지위를 리용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다. 그 때에 수정주의자들의 형세는 매우 큰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레닌을 선두로 하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혁명적 맑스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수정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다. 레닌의 사상으로 무장된 수백 수천만 공산주의자들의 대군이 자라 났다.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는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되여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휘날리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레닌주의의 가면을 쓰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가리울 수 없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압박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위대한 혁명 투쟁 앞에서 수정주의자들의 정체는 폭로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회주의적 로선은 파산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더욱더 확증되고 있으며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공산주의적 혁명 대오는 부단히 장성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착취와 압박이 있는 한 인민 대중은 계속 해방과 독립을 요구하여 궐기할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공산주의 운동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수정주의의 패배와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더 높이 들어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이 단결하여야 하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하며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였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전 세계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의견 상이가 발생한 첫날부터 시종 일관 단결의 원칙을 수호하여 왔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충실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근로 인민들이 불멸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 있게 전진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 ❋

<1> 레닌 전집 제 31 권 272 페지
<2>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0년 판 19 페지
<3> 쓰딸린 쏘련 공산당 제 19 차 대회에서 한 연설
<4> 레닌 전집 제 31 권 98 페지
<5> 김 일성 선집 제 5 권 245 페지
<6> 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한 연설
<7> 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543 페지
<8> 레닌 전집 제 28 권 364 페지
<9> 레닌 전집 제 31 권 214 페지

(로동 신문에서 전재)

권두언

영웅 조선 청년의 혁명적 기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시위하자

최근에 진행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명년 5월에 소집되는 민청 제 5 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호소문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고함》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는 당의 령도 밑에 민청이 창건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성한 업적들과 승리적 로정이 총화되여 있으며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할 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시되여 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전반적으로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선 시기에 소집되는 민청 제 5 차 대회는 조선 청년들의 생활과 청년 운동의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대회는 당의 령도 밑에 조선 청년 운동이 달성한 승리와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뭉친 조선 청년들의 전투적 위력과 혁명적 투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시위하게 될 것이다. 대회는 또한 제 4 차 당 대회가 민청 앞에 제시한 강령적 과업 실행과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전 세계 진보적 청년 학생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일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민청 제 5 차 대회는 또한 승리와 영광에 찬 민주 청년 동맹의 전투적 로정을 총화하고 우리 혁명 발전의 새 단계에 적응하게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게 된다.

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흥분시키는 감격적인 소식인가!

민청이 걸어 온 지난 18 년 간의 행로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일관되고 혁명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성장 발전한 로정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해방 후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전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언제나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항상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일의 앞장에 서서 당 정책을 관철하는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새 생활 창조를 위한 간고한 투쟁 속에서 민청은 조직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강화되였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 운동을 분렬시키려는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250여만의 각계 각층 청년들을 자기 대렬에 망라한 대중적 조직으로 강화 발전되였다.

민청 대렬 내에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혁명적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이 확립되였다.

혁명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로동과 학습과 수양을 통하여 성장한 수십 만 명의 민청원들이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대렬에 들어 섰으며 수 많은 유능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간부들이 민청 대렬에서 육성되였다.

오늘 민주 청년 동맹은 당의 부름이라면 어떠한 혁명 초소에서라도 지체없이 동원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업이라도 영예롭게 감당 수행할 수 있는 강유력한 전투적 조직으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랐으며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기에 준비된 견결한 혁명 전사로 지, 덕, 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 나고 있다.

민청의 장성 발전과 그가 달성한 모든 업적들은 지난 30여 년 간 조선 청년 운동을 직접 조직 지도하신 김 일성 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 일성 동지는 청년들을 사회 혁명의 가장 적극적이고 생기 발랄한 부대로 보시고 혁명 활동의 첫 시기부터 청년 운동을 직접 조직 지도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공청과 아동단을 조직하시고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 력량으로, 조국의 장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공산주의 투사로 교양 육성하시였다.

조선의 수 많은 애국 청년들이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항일 빨찌산 대렬에 참가하여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를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민청은 15 개 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 청년들이 이루어 놓은 영광스로운 혁명 전통과 고귀한 경험을 계승하였다.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해방후 민청을 창건하고 그의 성격과 기본 임무를 명백히 규정하여 주었으며 혁명의 매 시기에 민청이 수행해야 할 과업과 활동 방향과 사업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였다.

청년 사업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은 민청의 모든 활동의 강령적 지침으로, 청년 교양의 기본 내용으로 되였다.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지지 고무해 주고 결함을 제때에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민청의 활동을 위하여 백방의 조건을 보장하여 주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바로 여기에 민청의 무진장한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할 것이며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고하게 전진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민청 제 5 차 대회는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게 된다.

오늘 청년 동맹 앞에는 전체 청년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혁명 위업 실천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며 그들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 육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그들의 정치 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이 비상히 높아졌다.

현실은 새로운 혁명 임무와 청년들의 변화한 처지에 적응하게 청년 동맹을 보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부터 당은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 동맹의 역할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울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의 발전과 청년들의 생활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지워진 임무가 얼마나 무겁고 영예로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 나갈 혁명적 결의를 더욱 굳게 다져야 한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로력적 위훈을 세우며 민청 조직의 공고화와 공산주의적 수양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용기 백배, 기세도 새롭게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우선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증산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명년도 생산 준비와 영농 준비를 빈틈 없이 갖추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의 력사적 결정과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천리마의 대진군에 떨쳐 나서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하여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확대하는데 있는 지혜와 기술을 다 바치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일용품 공장, 일용품 직장을 꾸리고 1 등품 생산자 대렬을 부단히 확대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선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농촌 경리 부문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알곡 특히 벼의 생산을 장성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논 4 만 정보 확장 공사와 정당 500 키로 증수 운동에 앞장 서 참가하며 축산, 과수, 공예 작물 생산에서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돌격대를 조직하여 광산과 탄광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굴진 선행과 갱도 영구화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기계 제작 공장들에서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며 생산을 자동화, 반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요구되는 기계 설비들을 더 빨리, 더 좋게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해주—하성 간 광궤 철도 부설 공사를 단 75 일 간에 끝낸 그 솜씨로 평양—신의주 간, 평양—신성천 간 철도 전기화 공사와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 등에서 천리마 조선 청년의 영예와 기백을 다시 한 번 떨쳐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도처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가강히 전개하며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자기의 힘을 믿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을 일층 강화하고 선진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설비를 적극 애호 관리하고 《붉은 기대》 쟁취 운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써 더 많이 생산하는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제 4 차 당 대회가 민청 단체 앞에 준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철저한 로동 계급의 전사로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속 심오하게 연구 체득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당 중앙 위원회를 견결히 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확고한 계급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반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며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반제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국주의를 미화 분식하며 그에 아부 굴종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 더욱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혁명 정신을 거세하며 청년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수정주의의 반동적 본질과 계급적 근원을 깊이 인식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들이 류포시키고 있는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 리론과 부패한 서방 양풍의 침습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 로동 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지주, 자본가 제도를 증오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며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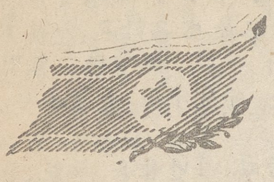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이 발휘한 고귀한 혁명 정신을 본받아 혁명적으로 일하며 부화와 안일을 배격하고 검박하고 명랑하게 살며 로동과 집단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촌음을 아껴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서 선진 과학 지식과 최단 기간 내에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며 로동과 조국 보위를 위하여 체력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민청 규약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규약 상 의무와 조직의 위임 분공을 자각적으로 집행하며 민청 생활 총화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당면하게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당의 붉은 편지의 연구 토의 사업을 심화시키며 이와 결부하여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과 호소문을 청년들에게 광범히 해설 침투시키고 그의 집행 대책을 실'속 있게 강구하며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창조적 모범을 제때에 지지 일반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앙양에로 힘 있게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인민 주권은 인민들과 청년들의 행복의 기치

오는 12월 3일에 지방 주권 기관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해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데 뒤'이어 실시되는 금번의 지방 주권 기관 선거는 우리의 인민 정권 기관들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림으로써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가일층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금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로 굳게 뭉친 조선 인민의 통일 단결을 다시 한 번 힘 있게 시위하게 될 것이다.

인민 주권—이는 우리 당의 위력한 혁명의 무기이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 정권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의 정권은 철저하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정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 정권은 우리의 혁명 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가장 고귀한 혁명적 전취물이다. 과거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이 주권의 주인으로 된 그러한 선진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고 수 많은 애국 선렬들이 바로 이 주권을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렸다. 또한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인민 주권을 피로써 사수하였으며 그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재능을 다 바쳤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혁명의 승리적 로정과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인민 정권의 귀중함을 더욱 절실히 체험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의 인민 정권은 당의 령도 하에 조국 력사에 길이 빛날 찬연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인민 정권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민주 기지를 반석 같이 강화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수함으로써 이 땅에 착취와 빈궁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인민 정권의 기치 밑에 우리 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가난하고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기 힘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자립 경제를 건설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중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에 뒤'이어 9년 제 기술 의무 교육이 성과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민족 문화는 전면적으로 꽃피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미래에 대한 신심도 높이 다 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화목하게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하나의 붉은 대가정을 이루고 있다.

나날이 륭성 발전하는 조국의 품에 안겨 우리 청년들은 무한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실로 인민 정권은 지난날 억눌리고 학대 받던 우리 나라 청년들에게 온갖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었고 자기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지금 공화국의 각급 주권 기관들에는 1만 7천여 명의 청년 대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여만 명에 달하는 젊은 기술자들과 전문가, 작가, 예술인들의 대부대가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청년들 앞에는 마음껏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여 있다. 북반부 인구의 4 분의 1에 해당하는 255만의 청소년들이 수업료도 없이 철 따라 교복과 장학금까지 받으며 각급 학교들에서 배우고 있으며 공장 대학, 공산 대학과 통신 교육 망들에서는 수십만의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있다.

산 좋고 물 맑은 명승지들에는 수 많은 정휴양소들이 건설되여 청년들의 건강과 문화적인 휴식에 복무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 체육 시설들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전체 청년들이 무상 치료제의 혜택을 받으면서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국살이의 설움과 고통을 겪던 수만 명의 청년들이 번영하는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고 희망찬 새 생활을 누리고 있다.

우리 청년들의 생활은 환희와 랑만과 혁명적 정열로 들끓고 있으며 그들의 앞길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

유구한 력사에서 우리 조국이 언제 오늘처럼 륭성 발전한 일이 있으며 청년들이 나라와 주권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즐긴 때가 있었던가?

전체 청년들은 우리들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인 인민 주권을 튼튼히 수호하며 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쳐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우리의 인민 주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금번의 지방 주권 기관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고 실지 사업에서 검열된 능력 있고 우수한 애국자들을 선거하여 도, 시, 군, 리 인민 위원회들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선거 선전대, 청년 기동 선동대 등에 적극 참가하여 근로자들과 청년들 속에서 선거 선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금번 지방 주권 기관 선거를 보다 높은 로력적 선물로 맞이하기 위하여 4 기 7 차 전원 회의의 력사적 결정과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고하는 호소문을 받들고 천리마의 진군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

금번 실시되는 선거 기간은 금년도의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결속 짓고 명년도 생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선거의 그 날까지 모두가 금년도 자기 앞에 부과된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로력 전선에서 승리의 영예를 떨친 자랑과 긍지를 안고 선거장에 나서야 한다.

금번 선거에서 당과 인민 주권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된 우리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 영웅적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본때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된다.

전체 청년들은 지난 번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때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금번 지방 주권 기관 선거에서도 높은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를 발휘하여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자!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싶은 말

원쑤는 끝까지 소멸해야 한다

서 철

젊은 동무들!

우리는 오늘 투쟁의 시대,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더우기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직접 맞서고 있다. 미제 원쑤들은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우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은 의연히 국제 국내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사랑하는 조국 땅에서 침략자—미제를 몰아 내고 전국적으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할 숭고한 력사적 과업이 부과되여 있다. 나아가서는 지구 상에서 제국주의를 쓸어 버리고 착취와 략탈과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세계 혁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지난날 항일 빨찌산들은 그 어떤 어렵고 간고한 정세 하에서도《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원쑤와 싸워 이겼다.

1939년에 있은 일이다.

당시 일제는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 전쟁에서 전선이 고착되자 자기의 정예 부대를 동원하여 《후방 안전》을 기한다고 하면서 유격대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 작전을 감행해 왔다. 그 때 몇 십명 밖에 안 되는 내가 속한 소부대는 앞뒤에서 집요하게 달려 드는 적들과 싸워야 했고 나무마저 얼어 터지는 혹한과 주림을 이겨 내야 하였다.

(이 적은 성원으로 몇 십 몇 백 배에 달하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갈 것인가?)

생각할수록 앞'일이 막연하였다. 바로 이 때 나의 귀'전에는 남패자에서 처음으로 김 일성 동지를 뵈옵던 때 그 이께서 하시던 말씀이 쟁쟁히 울려 왔다.

《앞으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간고해 질 수 있소. 그럴수록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원쑤와 싸워야 하며 싸워서 승리해야 하오.》

김 일성 동지의 이 말씀은 나의 가슴에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 주었다.

(그렇다! 그 이의 가르침 대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원쑤와 싸워야 하며 싸워서 승리하여야 한다.)

우리 소부대원들은 그 때 앞으로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김 일성 동지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 갈 것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우리 소부대 성원들 중에는 남패자에서 헤여진 후 김 일성 동지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 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이가 계시리라고 짐작되는 동쪽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동서 남북 그 어디에서나 욱실거렸다. 낮에는 적들의 눈을 피하여 눈 속에서 머리만 내놓고 있다가 밤이면 행군하였다. 적들의 불무지 사이를 빠져 불과 몇 발'자국만 나가면 또다시 불무지가 나타나군 하였다. 어떤 때에는 날이 새도록 불무지 사이를 빠져 다니다가 지난 밤 떠난 그 자리로 되돌아 오는 때도 있었다.

적들은 보병들 뿐만 아니라 항공대까지 동원하여 아군의 종적을 찾기에 미쳐 날뛰며 삐라를 뿌리고 폭탄을 퍼부으면서 우리를 위협하였다.

무엇보다 곤난한 것은 식량 사정이였다. 계속 굶으며 행군하던 대원들은 하나, 둘 눈 우에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퉁퉁 부어 오르고 군복과 신발도 다 해여졌었다. 손과 발은 얼다 못 하여 껍질이 벗었고 나중에는 감각조차 잃을 지경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곤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의 심장은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그 한 사상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결코 적들의 공세나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급급해하지 않았다. 도리여 적들의 약한 고리를 찾아 대담하게 원쑤들을 치면서 행군하였다. 어떤 때는 왜놈들의 목재소를 불의에 습격하고 수 많은 왜놈들의 수비대원과 위만군을 소탕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런 때에는 앉아서 움직이기조차 어려워하던 동무들도 장수 같이 일어 나 싸우군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수개월 간에 걸친 장구한 행군 끝에 오매에도 그리던 김 일성 동지를 끝내 만나 뵈옵게 되였고 그 이의 령도 밑에 원쑤들을 반대하여 계속 용감히 싸웠다.

15여 성상에 걸친 장구한 기간 우리 앞에는 어찌 이런 때가 한두 번만 있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때에도 원쑤들과 끝까지 싸우며 싸워 승리하여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사상과 가르침 대로 만난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으며 그리하여 끝내 일제의 패망과 조국 해방의 그 날을 영접하였던 것이다.

젊은 동무들!

우리는 오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평화》의 가면 밑에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게다가 제국주의의 종복인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비렬하게 책동하면서 현 시대를 《평온한 시대》, 《투쟁이 없는 시대》, 《평화적 협조의 시대》라고 떠벌리고 있다.

혁명 투쟁을 포기한 이런 자들은 지구 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저절로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어느 때 원쑤들이 력사 무대에서 저절로 물러간 일이 있단 말인가!

오직 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하며 철저히 때려 부셔야 한다.

오늘과 같이 준엄한 투쟁의 시대,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에 하루라도 해이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

우리는 혁명의 기치, 반 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원쑤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야 하며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천리마 대진군의 대렬 속에서 긴장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들, 젊은 세대들에게 간곡히 하고 싶은 말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민족적 긍지

김 능 훈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자기 나라의 모든 진보적인 것과 우수한 전통, 력사와 문화에 대한 민족적 긍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1958년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민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과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여야 하며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훌륭한 문화 유산들을 계승하여야 하며 그것을 더욱더 개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를 연구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진보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민족적 긍지감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매개 민족은 그의 대소를 불문하고 그에게만 고유한 인민의 력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 대중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투쟁 과정에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며 사회 혁명의 간고한 투쟁 가운데서 혁명 전통을 이룩하며 또한 그 나라 인민에게만 고유한 민족적 형식의 문화를 창조한다.

새로운 세대들은 선행 세대에 위하여 이루어진 모든 우수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력사를 창조하며 사회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킨다. 이리하여 매개 민족은 자기 인민의 력사와 문화로써 전 인류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며 사회 발전의 전진 운동을 추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매 민족은 자기의 력사, 인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응당한 민족적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새 사회의 력사와 문화를 주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민족적 긍지에 대한 멸시는 사실에 있어서 대중이 창조한 력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이며 인민 대중의 혁명적 력량과 그의 창조적 재능에 대한 멸시를 의미한다.

자기 나라 력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는 곧 인민 대중의 활동에 대한 깊은 리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민족적 긍지감은 인민들이 조국 땅 우에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한 모든 업적을 깊이 인식하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는 고상한 지향과 일치한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전통,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우리 당은 민족적 전통과 문화 유산중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으며 새 생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계승하여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게, 인민의 기호와 감정에 상응하게, 현실이 제기하는 과업에 부합되게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적 긍지감은 결코 과거에 대한 자만 자족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것 즉 진정으로 인민적인 것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에 기초한 가일층 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지향이다.

민족적 긍지의 감정은 또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일치된다.

맑스-레닌주의는 민족적 리익과 국제주의적 리익의 통일의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매개 나라 인민들의 애국주의 감정, 민족적 긍지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매 나라 로동 계급과 인민들은 높은 민족적 자부심과 자기 나라의 혁명 위업에 대한 심오한 자각을 가짐으로써만 국제 로동 운동이 그에게 부여한 민족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자체의 힘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높은 혁명적 열의와 완강한 전투 정신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자기 나라 력사와 문화 전통을 진정으로 평가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만이 세계 선진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자기 나라 인민의 간고한 투쟁 력사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인식할 줄 모른다면 역시 다른 나라 인민의 력사와 문화 전통에 대하여서도 진정한 계급적 태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교양을 강화하면서 우리 민족의 력사, 문화 전통에 대한 민족적 긍지를 높이는 동시에 다른 나라 민족과 인민의 전통과 력사, 문화를 존중하며 옳바르게 평가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 ×

우리 인민의 높은 민족적 긍지는 우리 조국 산천에 대한 깊은 사랑에 스며 있다. 우리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 조국 강산은 예로부터 산천이 수려하였으며 근면한 우리 인민의 로력과 간고한 투쟁으로 하여 더욱 아름다와졌다.

우리는 또한 외래 침략자들과 국내 반동 통치배들, 착취자와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발휘한 인민들의 무비의 영웅성과 애국주의, 높은 민족적 기개와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 고매한 정의적 정신에 대하여 민족적 긍지감을 가진다.

우리 나라의 첫 국가—고조선 시대에 벌써 우리 인민은 근면하게 생산에 종사하면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는 한 나라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봉건 사회에 들어 오면서 수양제 대군

을 물리친 을지 문덕 장군과 김 유신장군을 비롯한 신라 인민의 투쟁, 강 감찬 장군의 구성 전투를 비롯하여 거란의 침략군을 격퇴한 고려 인민의 전투, 리 순신 장군의 왜적을 물리치기 위한 한산도 전투와 수 많은 해전들은 우리 인민의 완강한 투지와 조국에 대한 충실성, 군사 전략과 전술에서의 우월성, 대담한 지략을 보여 주며 일편 단심 조국의 장래와 번영, 인민의 안녕을 위한 지극한 애국주의를 보여 준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외적 앞에 굴할 줄 모르며 전 민족이 하나로 되여 끝내 원쑤들을 격멸하고야 마는 고매한 전투적 정신이 축적되였다.

특히 19 세기 후반기 미국을 비롯한 서구라파 제국주의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국내 반동 통치배를 반대한 1811년~1812년 평안도 농민 전쟁, 1862년 진주 농민 봉기와 1894년의 갑오 농민 전쟁과 국내 의병 운동은 착취자와 억압자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 인민들의 고매한 애국주의 정신을 보여 주었다.

조선 인민의 근세 력사는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한 애국적 력사였다. 우리 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조국이 식민지로 강점된 암담한 시기에 반일 의병 운동을 비롯한 치렬한 투쟁으로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어느 때도 제국주의 강탈자에게 굴하지 않는다는 기개를 보여 주었다.

전 민족적 3. 1 봉기 이후 민족 해방 운동의 령도 계급으로 출현한 로동 계급을 비롯한 농민들의 투쟁은 반제 투쟁과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띠고 치렬히 전개되였다. 6. 10 만세 운동과 그 후 원산 로동자들의 총 파업, 평양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총 파업, 신흥 탄광 로동자들의 총 파업과 폭동, 단천과 기타 지역들에서 팽배하게 일어 난 농민 봉기 등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인민들은 일제 강점 전 기간에 그 어느 한때도 반일 투쟁의 불'길을 멈춘 때가 없었으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와 지주,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고귀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력사 분야에서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들의 찬연한 유산들을 가지고 있으며 《삼국 사기》, 《삼국 유사》, 《리조 실록》, 《대동여 지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화 보물을 가지고 있다.

사상 분야에서는 리 수광, 박 연암, 정 다산, 최 한기 등 실학의 거장들과 기타 유물론 사상의 대가들을 배출하였고 《목민 심서》, 《옥루몽》, 《열하 일기》 등 기타의 대작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실학자들의 철학 사상은 인류 사상 문화 발전에서 이채를 띤 유물론 사상으로서 독자적인 력사적 및 철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구라파에서 중세기 철학이 종교에 억눌리여 관념론의 테두리를 벗어 던지지 못 하고 있을 때 우리 실학 사상가들은 실사 구시의 기치 밑에 실천과 당대의 과학 성과, 농민 대중들의 지향을 반영하면서 탁월한 사상을 내놓았다.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민족적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천문 관측에서 첨성대와 리조 시대의 천문 관측 기구들, 허 준의 《동의 보감》, 건축과 조각 예술 등에서 극치를 이루고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 《고려

자기》, 《훈민 정음》 등 세계적인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약과 활자를 발명하였고 군사 과학 발전에서도 거북선을 비롯한 각종 화력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민족적 자랑, 민족적 긍지이며 세계 문화에 대한 커다란 기여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령도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 전통이다.

항일 무장 투쟁이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의 하나는 그가 우리 나라의 과거의 민족 해방 투쟁과 근로 인민의 해방 투쟁,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루어진 모든 우수한 것, 긍정적인 것, 진정으로 인민적인 것을 계승하고 그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새로운 시대와 새 조건에 적응하게 총집대성하였고 질적인 변혁을 이룩한 데 있다.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우리 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가 이루어졌고 맑스-레닌주의 기치 밑에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되였으며 빛나는 사업 전통과 백절불굴의 공산주의 혁명 정신이 이룩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조선 인민이 살아 있고 제국주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와 결사적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강력한 일환임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 령도 핵심이 꾸려지고 조선 혁명의 주체적 력량이 튼튼히 꾸려졌으므로 하여 조선 인민은 일제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며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우리의 민족적 긍지는 또한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 분이신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데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은 력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근세에 들어 와서 우리 인민들은 외래 침략 세력과 특히는 일제를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인민들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였으나 1930년대 이전까지는 승리하지 못 하였다. 혁명은 간고하였고 인민들의 투쟁에는 우여 곡절이 심하였다.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농민 대중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할 새로운 령도자의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바로 조선 인민의 이 절박한 념원은 김 일성 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맞이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조선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게 된 그 때로부터 우리 나라의 민족 해방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이 땅에 새로운 시기가 열리였다. 김 일성 동지는 암담한 일제

통치 시기에 조선 인민에게 민족적 재생과 조국 광복의 길을 밝혀 주시였다.

김 일성 동지가 우리 인민의 해방 투쟁을 령도함으로써 민족 해방 투쟁의 앞길을 가로 막던 각종 암초들이 산산이 깨여졌고 맑스-레닌주의와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조선 혁명은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해방 후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북반부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령도하시였으며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인도하시였으며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락후한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켰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로동당 시대, 천리마 시대에 와서 민족적 대번영을 체험하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이 꿈꾸어 왔으며 념원하였던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혁명 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과 그이가 령도하시는 세련된 당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 인민은 자유와 행복,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밑에 험난한 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이며 최대의 행복이며 영광이다.

× ×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서 자기 앞에 부과된 력사적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민족적 긍지감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들은 주체를 확립하고 자력 갱생하는 혁명 정신을 발양하며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 특히 우리 당의 투쟁 력사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민족 배타주의와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진흙탕에 빠져 다른 나라 인민의 투쟁 력사와 찬란한 문화사를 외곡하며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위대한 혁명 전통을 외곡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우리들은 반수정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력사에 대한 허무주의적 외곡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함이 없이는 민족적 긍지를 제고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인민의 력사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면서 민족적 긍지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치시키고 있으며 민족적 임무와 국제주의 임무를 대치시키고 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진리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우리들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외곡을 반대하고 민족적 및 혁명 전통을 백방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의 모든 우수한 것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조건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함으로써만 우리들은 혁명 투사들처럼 용기 백배하여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우리 앞에 제기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사상, 품성, 감정

최 원 종

우리 청년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견결한 혁명 전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 의식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것은 첨예한 현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하며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상 전쟁》의 불씨를 도처에 뿌리고 있다.

한편 제국주의자들 앞에 아부하며 투항 변절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놈들의 침략 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미제의 《사상 전쟁》의 적극적 방조자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다 같이 근로 인민들과 청년들의 의식 속에서 혁명적 로동 계급의 사상을 거세하고 부르죠아 사상을 주입시키며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 기풍 대신 썩어 빠진 반동적 부르죠아 생활 양식을 침습시킴으로써 그들의 계급 의식과 혁명적 투지를 마비시키며 안일과 향락, 부화와 타락의 구렁텅이에로 몰아 넣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청년들은 자신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뿐만 아니라 품성과 감정까지도 로동 계급의 품성, 로동 계급의 감정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동 계급의 사상이란 곧 맑스-레닌주의 사상이다.

로동 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로부터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로동 계급은 자기의 계급과 전체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을 떠나서 개인의 해방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 전체 인민들이 행복하지 못 하고서는 개인의 그 어떤 행복도 바랄 수 없다고 간주한다. 여기로부터 로동 계급은 전체 근로 인민과 자기 계급을 착취로부터 해방하고 지구 상에서 착취와 억압이 없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력사적 사명으로 삼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은 자연 및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해방과 혁명에 관한 과학이며, 모든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과학이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관한 과학인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자기 계급의 혁명적 무기로 틀어 쥐고 자기의 위대한 력사적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로동 계급이 자기의 위대한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간고한 혁명 투쟁 행정에서 그 어떤 난관 앞에 부닥치더라도 자신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는 견결한 혁명 정신으로 원쑤들과 끝까지 싸울 때만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인 것 만큼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의지와 함께 생활을 개조하며 건설하는 무기와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 속에서 승리의 앞길을 명확히 밝혀 주며 우리의 전진을 보장하는 강유력한 혁명의 무기는 맑스-레닌주의》라고 가르치시였다.

바로 항일 빨찌산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생활과 투쟁의 지침으로, 혁명적 무기로 삼고 싸웠기에 그처럼 류례 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 무장 투쟁에서 마침내 일제를 타승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오늘도 조선 로동 계급과 인민들은 당과 수상 동지의 령도 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사상적 무기로, 생활과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한 결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리마 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로동 계급에게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빼앗아 낸다는 것은 로동 계급을 무장 해제시키며 혁명 투쟁을 말살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기에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 원수들은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을 거세하고 압살하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그의 사환'군인 현대 수정주의자들도 말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껄이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맑스-레닌주의를 거세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 교활하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온갖 내외의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동시에 그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우리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로작을 깊이 연구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로작을 파악함이 없이는 조선 혁명을 옳게 수행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국제적 임무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실천 활동에 옳게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산주의자로서의 인격을 완성하자면 사상적으로 견실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공산주의적 품성을 소유함으로써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동 계급의 품성이란 로동 계급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형성되고 공고 발전된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이다.

로동 계급의 품성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고도의 원칙성, 원쑤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단결성과 혁명적 동지애, 집단주의 정신,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근검하고 소박한 생활 기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현된다.

로동 계급의 품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주의 정신이다. 혁명이란 원래 간고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혁명 투쟁에서 로동 계급은 자기 계급과 대중의 힘을 단합하며 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은 언제나 집단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킨다. 로동 계급은 그 누구보다도 인민을 사랑하고 동무를 사랑하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바친다.

로동 계급의 품성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이다.

로동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수단으로써 가장 고상하고 영예로운 일이다. 때문에 로동 계급은 로동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로동에서 성실하며 자각적이고도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진다. 그러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건달을 부리는 낡은 사상과 행동을 철저히 반대 배격한다.

오늘 청년들이 지녀야 할 로동 계급의 품성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고도의 원칙성이다.

로동 계급의 원칙성은 원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에서 표현된다. 원래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모순은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다. 특히 오늘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를 타승함이 없이는, 지구 상에서 그것을 종국적으로 쓸어 버리기 전에는 자기의 위대한 력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제국주의와의 타협은 곧 로동 계급이 자기의 혁명적 위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며 적 앞에서의 투항 변절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은 지구 상에 적대 계급이 남아 있는 한, 부르죠아 반동 사상이 존재하는 한 그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순시도 멈출 수 없다는 고도의 원칙성을 견지한다.

또한 로동 계급의 이와 같은 원칙성은 자기의 당, 맑스-레닌주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옹호 관철하는 충실성에서도 표현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업에서의 엄격한 원칙성—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 품성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에서 사소한 편향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항상 모든 사업을 혁명의 관점에서, 당과 인민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품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 계급의 품성에서 중요한 측면의 다른 하나는 근검하고 소박한 혁명적 생활 기풍이다.

근검하고 소박한 생활 기풍은 근로 인민의 전통적인 미덕이며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로동 계급의 중요한 품성이다.

근로 인민은 원래 자기의 로동으로 물질적 부를 직접 창조하기 때문에 근면할 뿐만 아니라 로동의 열매를 소중히 여긴다. 반면에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탐내는 것을 더 없는 수치로 생각하며 생활에서는 언제나 근검하고 소박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로동 계급의 고상한 품성의 다른 하나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혁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의 불가분리적 련대성에서 제기된다. 매개 나라 로동 계급은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 혁명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은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있는 것은 더 많게 하고 잘 리용하면서 자기 나라 혁명을 최대한으로 앞당겨 수행하여야 된다.

로동 계급의 품성에는 이 밖에도 귀중한 것이 많다. 인민을 사랑하고 동무를 사랑하며 국가 사회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나라 살림을 알뜰히 꾸리는 것 등이다.

일상 생활에서 겸손하고 례절이 밝으며 공중 도덕과 규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남녀 간의 사랑, 결혼, 가정에 대한 건실한 태도들도 역시 로동 계급의 중요한 품성들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의 품성은 그것이 력사를 발전시키는 혁명 위업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 데 그 위대한 생활력이 있다.

그러나 오늘 로동 계급의 원쑤이며 혁명의 변절자인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로동 계급의

고상한 품성을 헌신짝 같이 내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것을 거세하려고 날뛰고있다.

특히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청년들에게 반동적이고 퇴페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비롯한 각종 부르죠아 생활 인습을 전파시킴으로써 그들을 개인의 안일과 향락, 부화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리하여 청년들의 건전한 사상을 흐리게 하며 혁명 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그들이 로동 계급의 고상한 품성을 지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 수정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나라 청년들 속에서는 자기의 최고 리상이 《좋은 남편을 만나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노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가 생겨나고 있는가 하면 《오늘을 위하여 살고 오늘을 즐기자. 래일에는 무엇이 일어 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멸망의 운명에 처한 착취 계급의 악취를 풍기는 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로동 계급의 품성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 시대의 청년답게 혁명적 락관주의에 충만되고 죽어도 인민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인민의 사랑 속에서 살며 싸우는 견결한 혁명가의 고상한 품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로동 계급의 사상과 로동 계급의 품성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로동 계급의 감정을 지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은 자기 조국의 산천을 무한히 사랑하고 아름답고 선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흥분하고 기뻐할 줄 알며 고상한 문화 예술을 즐길 줄 아는 가장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들이다.

로동 계급의 감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며 세상의 모든 진보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감정이다.

로동 계급은 자기 선조들의 로동의 성과와 일체 진보적인 것에 대한 민족적 긍지감을 가지며 그것을 가장 훌륭히 계승 발전시킨다.

만일 조국이 침략 당하는 위급한 시기에는 자기 생명도 청춘도 서슴없이 바치며 온갖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략자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다. 그리고 인민들이 불행할 때에는 자기의 불행보다 더 슬퍼하며 인민들이 행복할 때 자기의 행복보다 더 기뻐한다. 때문에 로동 계급은 누구보다도 착취자와 침략자에 대한 증오감이 강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을 친형제와 같이 간주하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세상의 모든 진보적인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로동 계급의 감정보다 더 풍부하고 건전한 감정은 없다.

오늘 다른 나라 인민들의 진보적인 전통과 력사를 말살하려 하며 조국도 인민도 착취자와 침략자들에게 내맡김으로써 인민들에게 온갖 재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설교하고 있으며 벗을 슬프게 하고 원쑤를 기쁘게 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는 이런 풍부하고 건전한 로동 계급의 감정이란 바늘끝만치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건실한 사상, 고상한 품성, 풍부한 감정이 통일된 사람만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

때문에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소유하며 자기의 문화 정서적 수양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차라리 계림(신라)의 개, 돼지가 될망정 왜국의 신하는 될 수 없으며 차라리 계림의 매를 맞을지언정 왜국의 벼슬과 록 (국가에서 주는 봉급)은 받을 수 없다.

(박 제상)

«계전기» 물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붉은 편지를 받든 함흥 동력 기계 공장 로동 청년들은 앙양된 열의 속에 새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하여 전기 철제 일용품을 더 많이 만들라는 당의 호소에 호응한 그들은 전기 밥가마, 2중식 곤로, 파즙기, 전자식 리발기, 전동기식 리발기, 자전거 발전기 등의 시제품을 훌륭히 만들어 내였고 그의 다량 생산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러한 전기 철제 일용품들이 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일편 단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간고 분투한 이 공장 로동자들의 숨은 로력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

× ×

민청원 최 선재 동무가 만들고 있는 자동 전기 밥가마 계전기의 시험은 벌써 열 번째나 실패하였다.

다른 부분은 어렵기는 했지만 비교적 잘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계전기의 전원 자동 조절 장치에 와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실패만 하였다. 선재는 손맥이 풀려 더는 일'감을 손에 쥘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제품 제작실 밖으로 나온 선재는 무거운 생각에 잠긴 채 구내로 발'길을 옮기였다. 가을 하늘에 별은 유난히도 반짝이고 있었다. 안타까운 그는 공장에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토의하던 때를 생각했다…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일용품을 더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 다시 한 번 대고조를 일으키라고 한 당의 호소를 받고 모두가 얼마나 흥분했었던가!

자동 전기 밥가마, 전기 곤로, 파즙기…그 옛날 갖출 것을 못 갖추고 가난하게 살던 처지에서 벗어 난 우리의 어머니들과 누이들이 또 이런 일용품을 받게 된다면 바쁜 일'손을 얼마나 쉽게 하겠는가. 당은 바로 이와 같은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 로동 계급에게 맡겼던 것이다.

때문에 선재는 자진하여 시제품 제작반에 망라되였고 전기 밥가마를 만드는 데서도 가장 힘든 계전기 제작을 맡아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전원 조절 장치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자동 기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다.

얼마 전까지도 생산 협동 조합이던 것 만큼 공장에는 금속을 분석하거나 가열 상태에서 금속의 팽창 계수를 알아 낼만한 실험 기구가 없었다.

선재는 공장에 있는 금속을 있는 대로 다 가져다 깎고 다스려서는 맞춰 보고 실패하면 또 다른 것으로 해 보고 하였으나 그 때마다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이다.

실패가 거듭되고 전진이 보이지 않게 되자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아예

처음부터 힘 들다고 하면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머리를 저었다.

《양철 땜질이나 하면 생산 협동 조합이 동력 기계 공장으로 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걸 만들다니, 간단한 철제 일용품이나 만들어도 될 걸…주관적 욕망만 가지고야 되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재의 가슴은 아팠다.

…돌이켜 보면 지난날 공장 청년들이 얼마나 간고한 길을 앞장 서 걸어 왔던가.

당이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불 사르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일하라고 호소하였을 때 그들은 얼어 붙은 성천강 모래톱을 까 헤치고 파철을 얻어다 120 톤 프레스며 공작 기계를 만들었다. 그 뿐인가. 100여 개의 폭탄 구덩이를 메우고 집을 일으켜 세웠고 여기저기 거리에 널려 있는 작업실을 합쳐 공장을 꾸린 것도 청년들이였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공장은 전동기며 변압기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내게 되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만한 일에 주저한단 말인가!

선재는 늘어진 실버들'가지가 얼굴을 스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량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시 작업실로 들어 갔다.

긴장된 나날이 다시 흘렀다. 선재는 다시 시계 태엽의 원리를 적용해 볼 것을 착안하고 그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몇 번의 실패 끝에 가망이 없다는 것이 확증되였다.

(차라리 이미 설계된 제품을 두드리고 깎아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나는 절대로 물러 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만은 정말 힘들다. 내가 자동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주관적 욕망이 아닐가?)

이 날 맥이 풀린 선재는 구내 소공원으로 나갔다.

이 때였다. 《뎅그랑!》 하고 쇠붙이를 부딪치는 소리에 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선재는 저 만큼 희미하게 외등'빛이 비치는 반제품 창고 곁 파철'더미에서 희끗희끗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이 따금씩 궁궁 안'간힘을 쓰는 소리도 났다.

《아바이!》

선재는 웬 일인지 코허리가 찡하였다. 가까이 가 보지 않아도 그것이 고급 기능공 차 창로 아바이라는 것이 알리였다. 당원인 그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 없이 선재를 고무해 주군 하였었다. 이 번만 해도 직접 계전기를 만드는 자기보다도 곁에서 보는 아바이가 더 안타까와 하였다.

방금 전 선재가 태엽식 전원 조절 장치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을 본 아바이는

《가만히 있자. 뭐 안 되면 또 해 보자구.》

하고는 그 억센 손으로 선재의 어깨를 잡아 흔든 다음 말 없이 어디로 나갔었다. 아마 아바이는 또 시험할 때 쓸 다른 쇠붙이를 얻으러 간 모양이다.

《아바이!》

선재는 파철'더미 쪽으로 몇 걸음 뛰다가 멈춰 서고 말았다. 아바이는 벌써 저만치 잰 걸음으로 창고 모서리를 돌아 서 버리였다.

(훌륭한 아바이야! 저런 이는 어떤 힘 앞에서도 결코 굽혀 드는 법이 없어…)

선재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작은 련못'가로 가서 긴 의자 우에 주저앉았다.

뿜어 오르는 분수의 안개 같은 물'방울이 달아 오른 선재의 얼굴을 시원하게 해 준다. 선재는 련못 가운데 세워 놓은 천리마 동상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공장의 미술 써클원들이 만든 것인데 이 작은 구내 공원을 제법 돋우 보이게 하고 있었다.

대내외의 온갖 원쑤들을 물리치고 보수주의, 소극성을 타파한 천리마는 기세차게 창공을 날고 있다. 《붉은 편지》를 높이 든 마상의 기수가 똑바로 선재를 바라 보고 있다.

선재는 그 마상의 기수가 주저하고 있는 자기 마음 속을 들여다 보며 웨치는듯 생각되였다.

(동무는 과연 무엇으로 천리마의 대진군 대렬에 들어 서려고 하는가!)

그 소리는 잠시나마 선재의 마음 속에 주저하던 것을 산산이 부셔 놓았다.

(그렇다, 목표를 향해 나가자. 나도 저 마상의 기수처럼 당의 붉은 편지를 높이 추켜 들고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면서 달려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선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번개처럼 스치는 어떤 생각을 잡아 쥐였다. 그것은 선재가 계전 장치를 만들면서 어렴풋이 생각하여 오던 것이기도 하였다.

(…전진하는 힘은 답보하는 것을 굽혀 놓는다. 이 원리로 한다면 복잡한 합금이 아니고서도 전원 조절 장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열 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한다면 이것이 열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 나겠는가…그것은 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금속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

시제품 제작실로 살 같이 달려 들어 간 선재는 기쁨에 넘쳐 아바이를 잡아 흔들었다.

《아바이, 좋은 수가 생각 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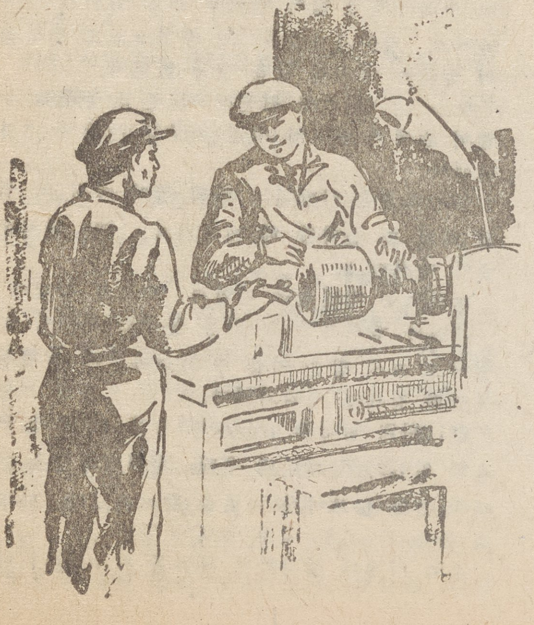
파철'더미에서 얻어 온 무슨 쇠붙이에 구멍을 뚫고 있던 아바이도, 일에 열중하고 있던 동무들도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다. 선재의 설명을 들으니 계전기 제작의 성공은 눈앞에 보이는듯 훤했다.

아바이는 선재를 덥석 끌어 안았다.

《선재, 자넨 정말 훌륭한 젊은이네!》

작업실에선 아닌 밤'중에 환성이 터졌다. 이 때 지배인 려 달식 동무와 당 위원장 동무가 문을 열고 들어 섰다.

몇 날 몇 밤을 작업대에서 밝히는 이 젊은이들을 보기가 딱해 등을 밀어 침실로 들여 보내면 청년들은 어느 틈에 또 작업실에 나와 있군 하였다. 그래서 오늘 밤은 한 가지 《계



교》를 꾸며 《선물》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였다.

《자 수고했는데 맥주나 마시고 들어 가 오늘 밤은 제발 좀 잡시다!》

다른 때 같으면 존경하는 지배인의 말이 효과가 있었을 지 모르나 이 밤만은 불타는 젊은이들을 설복시킬 수 없었다. 맥주병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작업실 구석에 놓인 채 있었다. 이렇게 일에 열중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당 위원장과 지배인은 서로 말을 건넸다.

《참 좋은 동무들이요. 저런 동무들이 못 해낼 일이 무엇이겠소.》

《글쎄 말이우다. 저런 동무들이 있는 한 명년에는 우리 공장에서도 질 좋은 전기 철제 일용품이 사태처럼 쏟아지게 되였수다.》

그렇게도 고심하던 계전기 제작도 성공되였다. 그리하여 쌀만 씻어 안치면 밥이 되고 밥이 되면 저절로 전원이 끊어지는 장치가 되여 있어 사람이 지켜 서 있지 않아도 되는 전기 밥가마를 만들어 내였다.

× ×

물론 이것은 함흥 동력 기계 공장에서 들은 극히 작은 한 가지의 실례에 불과하다.

당의 부름이라면 어떠한 곤난 앞에서도 굴함 없이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는 이 공장 로동자들과 청년들은 앙양된 혁명적 열의 속에서 계속 훌륭한 시제품을 만들어 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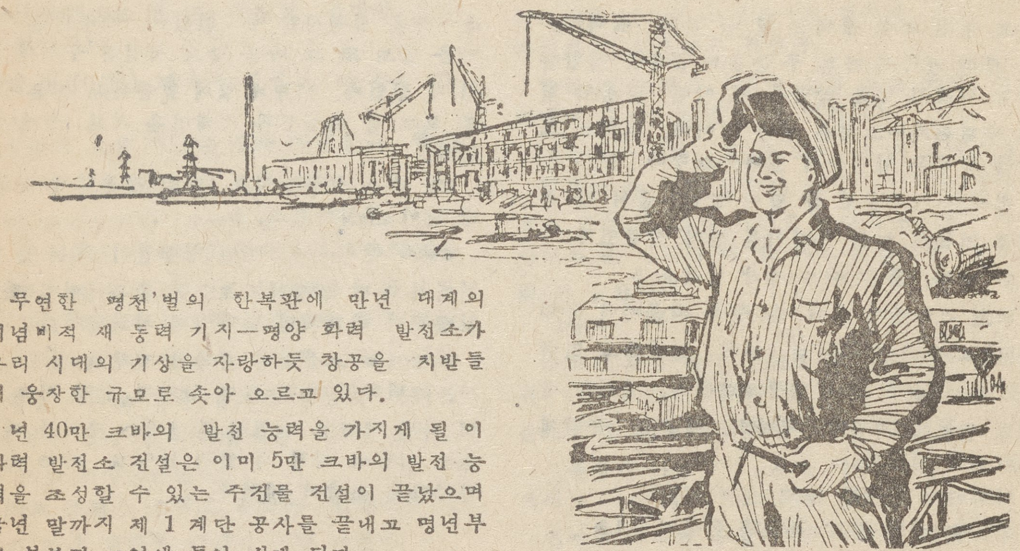
민청원 라 경섭, 리 배관 동무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직권 전동기를 만들어 내였다. 직권 전동기는 고정자 뿐만 아니라 회전자에까지 전류가 흘러 비동식 전동기에 비해 2배 이상 회전이 빠른 것이다. 그리하여 과즙기, 머리발기, 흡진기 등 직권 전동기가 들어 가야 하는 전기 일용품 생산에서 큰 전망을 열어 놓았다.

이것들은 남만 못 하지 않게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살려는 인민들의 숙망을 실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래년에 공장에서는 금년보다 133%나 높아진 기본 생산을 하면서도 거의 그 절반 이상의 생산액 만큼한 일용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설비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사 기자 한 현준

청춘의 정열은 불탄다!



무연한 평천'벌의 한복판에 만년 대계의 기념비적 새 동력 기지—평양 화력 발전소가 우리 시대의 기상을 자랑하듯 창공을 치받들며 웅장한 규모로 솟아 오르고 있다.

년 40만 크바의 발전 능력을 가지게 될 이 화력 발전소 건설은 이미 5만 크바의 발전 능력을 조성할 수 있는 주건물 건설이 끝났으며 금년 말까지 제 1 계단 공사를 끝내고 명년부터 부분적 조업에 들어 서게 된다.

지금 이 곳 발전소 젊은 건설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용기 백배, 기세도 새롭게 날마다 시간마다 《평양 속도》, 《비날론 속도》를 뛰여 넘는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다.

말 그 대로 건설장은 원쑤와 싸우는 전투장을 방불케 했다. 육중한 기계들의 동음 소리, 부재를 싣고 쉬임 없이 달리는 자동차의 대렬, 트라스와 벽체에서 번쩍거리는 용접의 불광, 하늘 높이 거연히 솟아 있는 75 톤급 대형 탑식 기중기와 120 메터의 굴뚝, 분주히 달려 가고 달려 오는 사람들…

기자는 이 건설장에서 보고 들은 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몇 토막만을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영웅 강 호영은 여기에도 살아 있다

지난 10월 초의 일이다. 《강 호영 영웅 청년 돌격대》원들 앞에는 이 화력 발전소의 심장부를 이루는 140 기압 보이라를 조립할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그들 청년 돌격대원들은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이 일을 11월 말까지 끝낼 결의밑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섰다. 그러나 경험은 어리고 로력은 긴장되였다. 그들은 낮에 밤을 이어 일에 달라붙었다. 제 아무리 지휘부에서 밤에 일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여도 막무가내였다. 그 무엇으로도 청년들의 들끓는 열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청 위원장 박 춘성 동무는 그들의 손에서 일일이 작업 도구를 빼앗아 내며 말했다.

《자, 오늘은 이만하고 일찍 들어 가서 푹 쉬고 래일 또 한바탕 해 제끼기오. 자, 어서들 들어 갑시다.》

그리고는 청년들을 떠밀며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돌격대장 강 익봉 동무는 자리에 누웠어도 도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날 밤은 류달리 길게만 생각되였다.

(이 화력 발전소 건설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 돌격대원들은 그의 심장부인 보이라 조립을 맡고 있다. 어떻게 하든 제 기일 내에 끝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를 차고 일어 나 건설장으로 뛰여 나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숙소로 돌아 간 줄로만 생각했던 차 원덕, 박 만종, 박 재종 동무들이 벌써 자기보다 한 발 앞서 나와 있지 않는가!

《아니 동무들 왜 또 나왔소. 이것은 규률 위반이오…》

그러자 차 원덕 동무는 능청스레 웃으며 말했다.

《돌격대장 동무는 이 밤'중에 어찌자구 나왔나요. 그것 역시 규률 위반이 아닙니까?》

《허허…이 동무들이……》

익봉 동무는 하는 수 없이 웃고 말았다.

그들은 다시 조립 작업에 달라붙었다. 한참 신'바람 나게 일하다가 쉬는 참에 박 만종 동무가 불쑥 말했다.

《대장 동무, 정말 집에 가서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당에서는 지금 우리를 새로운 천리마 고조에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후'날 우리 후대들이 〈형님들은 당이 새로운 천리마 고조에로 부르던 때에 어떻게 거기에 보답하였습니까?〉라고 물으면 어찌겠어요.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나왔지요.》

모두들 말이 없었다. 다 같은 심정인 모양이였다.

그들은 새벽까지 또 하나의 기둥 조립을 끝냈으며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는 또 일에 달라붙었다.

이런 청년들이 무엇인들 못 해 낼 수 있으랴!

그들은 수십 톤급 중량물을 다루어 정밀하게 조립해야 할 기둥 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해 나갔다.

그러던 중 그들 앞에는 가장 힘 들고 어려운 난공사가 남았다. 그것은 아직도 해 본 일이 없는 공기 열기를 조립하는 일이였었다.

이것은 실로 그 무게가 42 톤이나 되는 공기 열기를 하늘 높이 솟아 있는 4 개의 기둥 짬에 들어 맞추는 난 공사였다. 한 번 실수하는 날이면 그 무거운 중량물이 이 때까지 힘 들여 세운 기둥을 넘어뜨릴 우려가 있었다.

이 때 그들의 신심을 북돋아 준 것은 북중 기계 공장 로동자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75 톤급 대형 탑식 기중기였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력 갱생의 기치 높이 북중의 로동자들 자신의 힘으로 만든 것이였다.

이 때 강 익봉 동무는 돌격대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동무들! 강 호영 영웅은 지난 전쟁 때 두 팔, 두 다리를 부상 당하고도 입으로 수류탄을 물고 적진으로 굴러 들어 가 원쑤들을 족침으로써 미제 침략자들에게 조선 청년의 본때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웅의 이름을 지닌 우리 청년 돌격대원들이 어찌 이만한 일에 주저하겠습니까? 나는 동무들에게 오늘 밤'중으로 이 공기 열기를 조립함으로써 영웅적 조선 청년의 본때를 다시 한 번 온 세계에 보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동무들은 모두 이에 호응해 나섰다.

그들은 강 호영 영웅처럼 원쑤들을 짓부시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착수하였다.

밤 하늘에 거연히 솟은 75 톤급 대형 탑식 기중기가 길다란 팔을 휘저으며 육중한 공기 열기를 공중 높이 들어 올렸다.

신호수가 긴장된 시선으로 그것을 쳐다보며 연신 호각을 불고 기'발을 흔들었다. 집채 같은 공기 열기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우로 좌로 움직이였다. 사람들은 저저마다 손에 땀을 쥐였다.

류달리 호각 소리가 길게 울렸다.

공기 열기를 네 개의 기둥 사이에 있는 자기 위치에 들어 앉히라는 신호였다.

실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였다.

그러나 어찌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심장이 고동 치는 그들이 이런 일을 못 해 낼 수 있으랴!

긴장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디여 공기 열기는 자기의 위치에 조고만한 편차도 없이 정확히 가 닿았다.

건설장을 진감시키며 환성이 터졌다.

이리하여 그들은 일부 사람들이 망서리던 정밀한 공기 열기 조립 작업을 훌륭히 끝냄으로써 조선 청년의 영웅적 기개를 다시 한 번 떨쳤다.

그 밖에도 돌격대원들은 140 기압 보이라 본체 조립에 들어 서자 모든 지혜를 짜내여 배관 절단기, 만곡기, 배관 연마기를 창안 도입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900%나 높이는 위훈을 세웠다.

그들은 금년 11월 말까지 이 화력 발전소의 심장부를 이루는 보이라 조립 공사를 완전히 끝낼 결의 밑에 돌진하고 있다.

기술 혁신의 앞장에 서서…

그 어디에건 좋으니 이 곳 건설장에 찾아 와 보시라, 그러면 도처에서 500%, 1,000%, 1,500%라는 놀라운 작업 능률을 올리는 청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곳 청년 건설자들이 기술 혁신의 앞장에 서서 《1 인 1 건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여 건설에 광범한 기계화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실례는 고사하고라도 2 단 양수장 기초 굴착을 맡아 나선 수도 건설 지원 청년 돌격대 1 중대원들만 하더라도 소형 권양 장치, 불도젤, 광차, 벨트콤베아 등 각종 기계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95%로 높이고 어렵고 힘든 손로동을 퇴치했으며 하루 작업 계획을 평균 10 배, 15 배로 넘쳐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 곳 건설장을 가리켜 사람들이 《종합적 기계화의 표본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그들은 이 모든 중소 기계들을 창안 제작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자재를 받지 않고 파고철과 유휴 자재들을 자체로 수집하여 리용하였다.

외성 구역 3 중대 수도 건설 지원 청년 돌격대의 한 룡곽 동무는 건설장에서 살림'군으로 알려져 있는 동무이다. 그는 출퇴근할 때나 건설장 구내를 오갈 때에도 하나의 볼트나 못을 보아도 그것을 수집하여 말끔히 닦고 기름 칠까지 하여 전사해 두었고 파철 하나를 보아도 그의 리용 방도를 생각하였다.

어느 날 저녁 그의 동무들은 그가 녹 쓸고 깨여진 대형 치차 바퀴 하나를 굴리며 시내로 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

《룡곽 동무! 다 깨여진 치차는 무엇에 쓰려고 그러나?》

동무들이 물었다.

《다 쓸 데가 있지, 우리 직장에 가서 수리해 오려네. 며칠 후이면 이것도 다 제 구실을 하지…》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그는 이렇게 낡은 철재들을 주어 가지고는 자기가 본래 일하던 직장으로 가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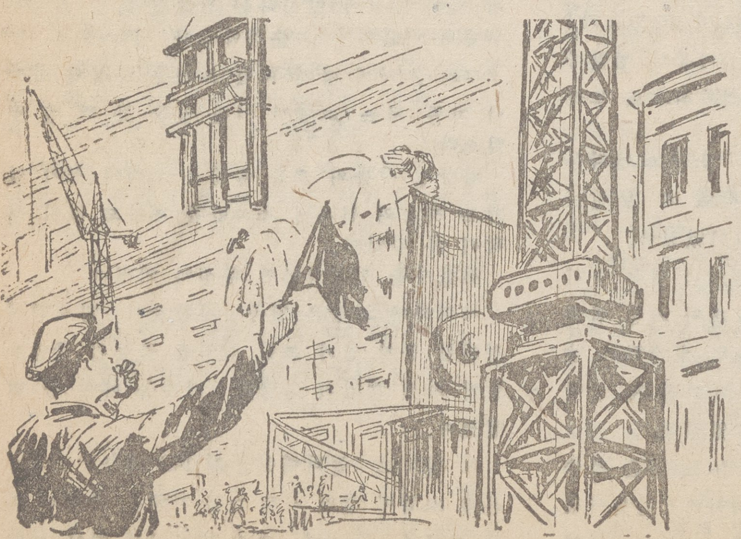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과연 건설장에는 하나의 소형 기중기가 불쑥 솟아 올랐다. 룡곽 동무가 고자재들을 주어 모아 조립한 것이였다. 이 기중기는 그들이 맡아 하는 기초 굴착 작업을 위한 수직 운반 작업에서 종전보다 10여 배의 능률을 내였다.

이리하여 120 일은 걸려야 한다던 이 굴착 작업을 그들은 단 15 일 동안에 해 제낄 수 있었다.

이렇게 청년들은 건설장에서 기술 혁신의 앞장에서 나아가고 있다.

전 인민적 관심 속에

지난 9월 21일, 평양시 내 청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민주 수도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청년 열성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후 수천 명의 수도 건설 지원 청년 돌격대원들은 이 곳 화력 발전소 건설장에로 달려 나왔다.

그들은 건설장에 도착하는 즉시로 웃통을 벗어 던지고 혁신을 일으키였다. 건설장은 한층 더 활기를 띄였다. 어찌 이런 일이 수도 청년들에게만 한하랴! 전국의 뜨거운 심장들이 이 곳 건설장에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초순에 있은 일이다.

황해 북도 봉산군 농기계 작업소에서 일하는 김 충성 동무는 휴양차로 북행 렬차에 몸을 실었다. 차 내에서 렬차원이 가져다 준 신문을 펼쳐 든 그는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장에서 당의 붉은 편지를 높이 받들고 련일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 나고 있다는 보도를 읽게 되였다.

충성 동무의 마음은 불길이 달아 올랐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천리마의 대진군 속에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는 때에 내가 어떻게 휴양소 침대 우에서 편안히 쉬고만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차가 평양역에 도착하자 즉시로 이 곳 건설장에 달려 왔다.

《나에게도 일을 맡겨 주시오…》

그는 이렇게 건설장 지휘부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건설장 간부들은 모처럼 받은 휴가이니 어서 휴양소에 가서 푹 쉬라고 권했다.

그래도 충성 동무는 굽어 들지 않고 기어코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제기해 나섰다.

끝내 건설장에서 일할 것을 허락 받은 그는 이 곳 설비 조립 트레스트 1 소대에 배치되여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렵고 힘 든 일마다 골라 가며 남 먼저 해 제끼군 하였다.

그는 웃으면서 동무들에게 말하는 것이였다.

《그까짓 힘은 두었다 어데 쓰겠습니까? 정말 우리 시대의 청년으로 이런 벅찬 공사에 참가하는 일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어데 있겠어요.》

그는 날마다 자기 계획을 곱으로 넘쳐 실행하였다. 건설장에서 볼미루(석탄 분쇄기) 조립이 한창 진행되는 날이였다. 충성 동무는 이 곳 건설자들이 귀중하게 쓸 볼트나트들이 규격에 맞지 않아 애먹는 것을 보았다. 충성 동무는 자진하여 이 일을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는 그 길로 부리나케 차에 올라 봉산으로 향했다. 자기가 일하는 농기계 작업소에 가서 고쳐 올 작정이였다.

충성 동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된 이 곳 민청원들도 한결 같이 떨쳐 나서 밤을 밝혀 가며 그것을 선반에 들이대고 깎기 시작하였다. 80여 개의 각종 볼트나트가 밤새로 가공되였다.

충성 동무는 그것을 메고 다시 건설장에 돌아 왔다. 그리하여 볼미루 조립 작업은 성과적으로 보장되였다.

자기의 휴양 기간을 고스란히 화력 발전소 건설장에서 보내고 또 건설장에 제기되는 애로를 밤 도와 해결해 낸 그의 이와 같은 소행은 얼마나 기특한 것인가.

건설장에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다. 평양 제 1 려관에서 일하는 황 영복 동무는 자기 남편이 출장 간 기간을 리용하여 화력 발전소 건설장에 달려 나왔다. 그가 맡아 하던 관리원 일은 다른 동무들이 대신하여 주었다. 건설장에 달려 온 황 영복 동무는 날 가는 줄 모르고 있는 열성을 다하였다. 그는 자기 계획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동무들이 아무리 권해도 집으로 돌아 갈 념도 안 했다.

출장에서 돌아 온 그의 남편 김 종환 동무는 안해가 건설장에 나가 열성껏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몹시 기뻤다. 그는 자기도 저녁마다 직장 일이 끝나면 건설장으로 달려 가 안해와 함께 일하군 하였다.

이렇듯 건설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아들을 도와 나선 안해와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휴가 기간을 보람찬 건설장에서 보내고 있는 수십 명의 《숨은 애국자》들도 있으며 휴식일마다 작업장에서 땀을 흘리는 청년들도 많다.

《결혼식 날'자는 미룰 수 있어도 건설 기일은 미룰 수는 없다.》고 하면서 계속 일에서 열성을 내는 안 상흡 동무와 같은 청년들도 있다. 지어 그들 중에는 70 로인들도 있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들에 떠받들리여 평양 화력 발전소는 거연히 일떠서고 있는 것이다.

본사 기자 차 청순



찌또 도당은 유고슬라비야 청년들을 어데로 끌고 가는가

김 석복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배반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의 반역자로 전락된 찌또 수정주의 도당은 미제의 충실한 머슴'군으로 복무하면서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이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말살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소생시키고 있다.

찌또 도당은 정치적으로 소위 《쁠럭 불가담》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아부 굴종하며 미제가 던져 주는 《원조》의 미끼를 받아 먹으면서 그의 충실한 주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의 독특한 길》이라는 구호 밑에 찌또 도당은 수정주의적 경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공업, 농업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 혼란과 파산을 일으켰으며 자국의 경제를 미국 독점체들에게 더욱더 예속시키고 있다.

찌또 도당은 사회주의적 소유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를 포기하고 그에 대치되는 《기업 자치》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리하여 유고슬라비야에서는 기업소들 사이에 제각기 돈'벌이를 위하여 서로 물고 뜯는 자본주의적 경쟁이 지배하고 있다. 결과 공업 생산은 매년 감퇴되고 중소 기업은 계속 파산 몰락되고 있으며 실업자는 날로 늘어 가고 있다.

찌또 도당은 공업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협동화와 국가적 지도를 포기하고 자유 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적 방법을 농업 정책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을 해체하고 토지의 매매, 소작, 고용 로동을 허용하며 부농들에 대한 토지의 집중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늘 유고슬라비야의 개인농은 전체 농가 호수의 98% 이상, 농경지의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농의 수중에 토지가 집중되고 농업 생산이 계속 감퇴되고 있다.

찌또 도당은 이와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반맑스주의적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 분야에서도 수정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찌또 수정주의 도당은 근로 대중과 특히 청년들 속에서 정치 사상 사업을 하지 않고 물질적 자극에 대한 관심만 고취함으로써 극도의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조장시키며 그들을 부화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 굴종하면서 청년들에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정치 투쟁도 사상 투쟁도 그만 두고 매 순간 자기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설교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에도 《사회주의의 최고 목적이 곧 사람들의 개인 행복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개인 행복을 그 어떤 〈최고 목적〉에도 복종시키지 못 한다》고 지적하고 부르죠아 사상의 기본인 개인 리기주의를 극구 찬양함으로써 개인의 리익을 집단과 인민의 리익과 대치시키고 있다.

결과 오늘 유고슬라비야 청년들 속에는 혁명 투쟁을 회피하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잘 살며 자신의 안일과 물질적 향락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산주의자 동맹》 벨그라드 대학 당 위원회가 지난 기간 3천여 명의 대학생들과 문답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개인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대답이 3 분의 2나 차지하였다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행복하지 못 한 리유로써는 《요구되는 많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구 동성으로 대답하였다고 한다.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개인 향락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머리가 건전할 수 없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높아질 리는 만무하다. 유고슬라비야 잡지 《꼼무니쓰트》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각 고등 학교들에서 근 90%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불량하므로 제때에 졸업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이로써 《대학생들에게서는 학과 시간은 제정 시간보다 50%나 초과되고 있으며 벨그라드 대학들에서만도 학교 기간이 평균 8 년 좌우로 늘어 가고 있다.》

오늘 유고슬라비야에서는 찌또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지나르(유고슬라비야 화페 단위)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 유고슬라비야의 모든 국가 기관, 기업소와 학교에 이르기까지 더러운 《뢰물》 행위가 성행되고 있으며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으로 변하였다. 때문에 공장, 기업소 내의 로력 취급자들은 하나의 《작은 하느님》으로 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선물》을 먹여야만 실업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학교들에서는 《뢰물》을 받아 먹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 주는가 하면 체육인들까지도 상품화되고 있다.

청년들 속에서 민족적 각성과 계급 의식이 마비되고 원쑤를 증오할 줄 모르며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조장되고 있으며 미국을 려행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미국 려행을 위한 려비를 축적하고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찌또 도당은 문학 예술에서 당성, 계급성을 말살하고 부패 타락하고 무기력한 부르죠아 사상을 례찬하고 있으며 청년들 속에 부르죠아 생활 양식을 광범히 류포시키고 있다.

허무와 색정, 굴종과 절망을 설교하는 추잡한 미국 영화와 도서, 쟈즈가 범람하여 청년들의 정신을 무섭게 좀먹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에서 허무주의적인 데카단스 문화의 범람의 진상에 대하여 《뽈리찌까》지까지도 《서방의 시대 정신이 영화와 쟈즈 음악과 함께 우리에게 (유고슬라비야) 침투하였다.》라고 통탄하였다.

《베스니크 우쓰레두》지가 전한 바에 의하더라도 유고슬라비야에서는 건전한 과학, 예술 서적보다도 돈'벌이를 위하여 탐정, 렵기, 색정 등을 내용으로 한

잘 팔리는 서적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바 추악한 색정적인 서적만 하여도 이 곳에서 매월 65만 부 이상이나 출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곳 3 개의 큰 출판사에서 해마다 출판하는 서적의 80%는 탐정, 련애 소설들이며 그 중에서 특히 미국과 기타 서방 나라 소설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밖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는 각종 퇴폐적인 신문, 잡지 및 서적들이 밀려들어 이 곳 도시와 농촌에 광범히 침투하고 있다.

영화 부문에서는 해마다 미국 영화 상영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바 1957 년부터 1961년 기간에 수입된 737 종의 외국 영화 수입 중 미국, 영국, 불란서, 이태리의 필림이 484 편이나 되며 그 가운데서 거의 절반은 미국 영화이다.

이 미국 영화들은 유고슬라비야 청년들 속에서 미래에 대한 허무와 절망, 염세와 타락을 고취하고 그들을 온갖 사회악에로 추동하고 있다.

거리마다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잡한 유흥장들에서는 유고슬라비야 인민의 전통적인 민간 무용들은 무시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서방의 음탕한 《록큰롤》, 《트위스트》, 《차차차춤》과 《훌라후프》등 히스테리적인 률동을 해 가면서 하루살이식 생활에 물젖고 있다.

이와 함께 유고슬라비야 청년들 속에서는 극도로 부화 타락된 각종 말세기적인 패륜 패덕 행위가 범람하고 있다.

얼마 전 유고슬라비야 주간지 《체육과 세계》라는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붉고 푸른 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푸른 아드리해 해변'가의 술'집〉의 영업은 밤에 시작된다. 잠들 줄 모르는 이 항구의 처녀들은 이 집을 자기의 왕국으로 간주하고 한 장, 두 장의 지폐를 위하여 〈고객들을 모시고〉하루 밤씩 새워 나간다. 미국, 영국, 불란서, 희랍 등 세계 도처에서 모여 온 각국 선원들은 이 항구에 들어 서자 곧 이 술'집으로 찾아 들어 오고 있으며 이 〈푸른 아드리야 해변'가의 술'집〉에는 170 명 이상의 젊은 유고슬라비야 처녀들이 그들을 대상하고 있다. 인제 겨우 20~25 세 밖에 안 되는 이 처녀들은 외국 고객들을 모시는데 습관되여 있으며 그 날 밤 시세에 따라 몸을 판 대'가로 3천~1만 4천 지나르를 구걸해 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500~300 지나르까지 시세가 폭락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잡지가 전한 《푸른 아드리야 해변'가의 술'집》 처녀들의 이 신세는 결코 그들에게만 차례진 운명만이 아니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찌또의 수정주의 정책이 유고슬라비야 사회 경제 생활과 청년들에게 가져다 준 암담한 후과의 단면은 이러하다.

이 모든 것은 찌또 도당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지껄이며 또 자신이 맑스-레닌주의자라고 지껄이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유고슬라비야에 자본주의를 복구하며 이 나라 청년들을 자본주의로, 또다시 소생할 수 없는 파멸적인 진흙탕 속으로 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찌또 도당이 부르죠아지와 제국주의자들의 생활 양식을 찬미하며 청년들 속에 이를 광범히 전파시키고 조장시키는 목적은 결국 혁명을 완전히 포기케 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고상한 지향과 리상에서 물러서게 함으로써 청년들을 부화와 안일, 타락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수정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조선 청년 학생들의 반제 투쟁에서의 모범

—광주 학생 운동 34 주년을 맞으며—

황 신 률

우리 나라의 근세 력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영용한 투쟁으로 일관되고 있다. 조선 청년 학생들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중요한 력량으로 되였으며 반제 투쟁의 앞장에 서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광주 학생 운동은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의 반제 투쟁의 빛나는 모범이다.

광주 학생 운동은 1920 년대 말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이 급격히 장화되는 환경 속에서 일어 났다.

일본인 학생이 한 조선 녀학생을 모욕한 사건을 발단으로 일어 난 광주 시내 학생들의 투쟁은 순식간에 전국에 퍼져 대중적인 반일 투쟁으로 전환되였다. 일제의 야수적 탄압과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학생들은 《일제를 타도하자!》,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사회 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피검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자!》 등 구호를 웨치면서 대규모적인 반일 시위를 단행하였다.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투쟁에는 전국의 근 200 개에 달하는 학교와 6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광주 학생 운동은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 혁명적 기개를 유감 없이 시위하였으며 전체 조선 인민의 반일 기세를 크게 고무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광주 학생 사건은 수만 명의 조선 청년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일어 선 군중적 투쟁이였으며 광범한 조선 청년들에게 반일 사상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광주 학생 운동을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훌륭한 모범》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광주 학생 운동을 계기로 전국 청년 학생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당시 그들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통일적 지도를 받지 못한 까닭으로 실패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애국적 조선 청년 학생들의 반일 투쟁은 그 후에도 계속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1930 년대에 이르러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지

도 하에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모든 간난과 시련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혁명의 붉은 기를 높이 추켜 들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방 후 조선 청년 학생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특히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물리치는 가렬한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오늘도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은 전체 인민들과 더불어 세계 반동의 괴수이며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있는 조건 하에서 놈들의 도발적인 침략적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조선 청년 학생들은 민족 해방 투쟁의 력사적 경험과 자기들의 실제 체험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현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하였다》고 하면서 제국주의는 더는 식민지에 대하여, 남의 나라의 령토에 대하여 야심을 품지 않게 된듯이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이 평화를 사랑하는듯이 떠벌리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나라들을 《호전 분자》라고까지 하는데 이르고 있다.

이 자들의 망발 대로 한다면 우리 나라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거기에서 인민들에게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미제와 투쟁하지 말고 그들의 침략과 략탈을 감수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조국의 통일 독립도, 사회주의 건설도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도 생각할 수 없다.

현 시기 수정주의자들이 이처럼 제국주의에 투항 변절하여 그에 로골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과 함께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애국 선렬들의 피로써 물들여진 지난 력사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되며 철두철미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미제에게 철저히 예속된 박 정희 괴뢰도당은 심지어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 들여 남조선을 미제와 일제의 2 중적 예속 하에 내맡기며 하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애국적 청년 학생들은 한 조선 녀학생에 대한 모욕을 계기로 전국적인 반일 투쟁의 불'길을 일으켰거늘 하물며 오늘 미제가 온 남조선 땅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 대한 테로와 린치, 강간 등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의 촉수까지 뻗치고 있거늘 우리 어찌 이 참극을 수수 방관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청년 학생들은 광주 학생 운동 34 주년을 맞이하면서 장구한 기간에 걸쳐 우리의 혁명 선렬들이 전개한 철저한 반제 투쟁의 모범을 본받아 일제의 재침 기도를 분쇄하며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바삐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며 제국주의를 지구 상에서 완전히 쓸어 버리는 날까지 대를 이어 가면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결의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나라의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오늘 이때는 얼마나 위급한가。우리 인민이 원쑤들의 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준엄한 시기이다。

나는 일찌기 훌륭한 문화를 가진 인민이 오랑캐로 변했다는 것을 듣지 못 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인민들이겠는가?…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능력에 따라 대소사를 맡겼고 대중의 마음이 모두 한 곳으로 쏠리니 장차 온 나라가 길이 맑아질 것이다。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애국자들을 당해 낼 자가 없음을 의심치 말라!

(류 린 석)

(시)



끝까지 지키리, 혁명의 붉은 기를!

리 상 건

네바강에 울려 퍼진 10월의 포성…
스몰리에서 타 오른 10 월의 홰'불…
전제와 학정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황제와 부르죠아 대신들을 축쳐 버린
로동 계급의 억센 대오에, 장엄한 그의
　함성에
인류는 잠을 깨였다, 동방은 일어 섰다.

오, 불멸의 기폭, 10월의 기치는
무산자들의 어깨 우에 높이 날고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천재의 유훈은 높이 울렸다.
다만 《영원한 질서》의 붕괴를 믿지 않은
양키—재벌들, 은행가들, 전쟁 상인들만이
10월의 뢰성 앞에 질겁하였다. 쓰러졌다.
로동자, 농민 병사들의 손이
주권을 튼튼히 틀어 쥐였음에….

이것은 새 기원!
이는 압제자에게 불처럼 내려진
무서운 철퇴였다, 선고였다!

부산과 문평의 로동자들이, 단천의 농민
　들이
파업과 폭동의 화염을 추켜 들었다.
장백의 밀림 속엔 혁명가 울리고
항일의 무장 대오 튼튼히 무어져
혁명의 긴긴 행군은 시작되였다.

아, 10월의 포성은
지구 우 모든 곳에 끊임 없이 서광을 뿌
　렸으니
마천루는 이 포성에 떨고
펜타곤은 천동 속에 울었다.
오, 10월—일리이츠가 불러 준
혁명의 폭풍우, 폭풍우여!
오늘도 이 폭풍 속에 양키 제국주의는 전
　률한다.
무덤을 판다, 죽어 간다.
오, 자유와 권리의 광명을 뿌려 주는
혁명의 기치, 투쟁의 기치여!

누구냐—날뛰는 자?
누구냐— 헤덤비는 자?
저주와 파멸의 진창 속에 굳어진
변절자의 찢어진 옷을 걸친 자,
피로 찾은 혁명의 성스런 전취물을,
쓰러진 혁명 전사의 유훈을 잊은 자,
10월이 열어 준 혁명의 대로 우에.
방탕과 안식과 영화의 그물을 치는 자,
제국주의 숨통을 쥐여 가며
기'발과 무장을 추켜 든 대오 우에
무장을 놓으라—감히 념불하는 자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혁명의 변절!
그것은 력사의 반역!
10월의 이름이 선고를 내린다.
뢰성은 울린다, 1917년의 그 날처럼.

10월을 향하여 앞으로!
투사들의 구령이 울린다!
아, 수십 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더 우렁차게, 더욱더 힘차게
일리이츠 10월의 기'발은 날린다.
로동 계급의 무수한 눈들이
의로운 투사들의 불타는 가슴들이
지녀 온 이름, 안고 온 이름,

위대한 레닌의 불멸의 기치는
시위와 폭동의 대오 우에
싸움의 수풀, 결전의 바리케트 우에,
포화의 전선, 유격전의 산'발 우에
홰'불처럼 비껴 간다, 불탄다!

끝까지 우리는 지킬 것이다!
불멸의 기치, 10월의 기치를.
그 어느 놈도 이 기치 아래 뭉쳐진
억세인 힘을 막지 못 한다!
오, 10월, 혁명의 뢰우여!



학습과 생활조직

리 재경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학습 열의를 부단히 높이며 모두가 항상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청년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정책을 심오하게 체득하며 과학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수상 동지의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학습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학습에서 한결같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에서의 성과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생기게 된다. 그 중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학습을 위한 생활 조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면 학습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는 생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직할 것인가?

우선 학습 관점과 목적을 옳게 세우고 학습을 계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그의 사상 관점과 목적 여하에 의하여 규정된다.

학습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들이 학습에서 가져야 할 옳은 관점은 당과 조국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훌륭하게 일하며 투쟁할 공산주의자가 되려는 데 있다. 만일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하여 학습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며 또 이러한 학습은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는 동시에 학습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례를 들어 어떤 동무들은 붉은 농산 기수, 기사가 되여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어떤 청년들은 기계 기사가 되여 기술 혁명에 앞장 설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어떤 동무들은 작가, 예술가, 과학자, 교원 등 지망을 가지고 학습에 전심할 수도 있다.

학습에 대한 이런 옳은 관점과 목표가 선 다음에는 자기 학습을 철저히 계획화하여야 한다. 학습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청년 학생들의 경험을 살펴 보면 모두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을 짜고 이악하게 이를 실천한 동무들이다. 일이 많고 생활 내용이 비상히 풍부한 현 시기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확하고 주밀한 학습 계획이 없이 또한 그 철저한 집행이 없이 정상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학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학습에서 중심 목표를 뚜렷이 내세우는 것이다. 즉 계획 기간 중에 끝내야 할 과목과 그 교재 내용을 밝히고 이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작성되여야 한다.

둘째로는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원리에 대한 학습, 그리고 다방면적 지식을 소유하며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모든 학습을 계획화하는 문제이다. 만약 어떤 청년들이 자기 학습을 어떤 전공 분야에만 국한시킨다면 학습에서 광활한 전망을 가질 수 없으며 편협한 실무주의자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계획은 학습의 중심 목표와 그 구체적 실천 대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 실천 대책에는 과목, 학습 내용, 학습 방법(복습, 독서, 발췌, 카드 작성, 실험 실습, 실제 작업, 토론 등) 기간, 시간 및 참고 문헌 등을 밝혀야 한다. 학습 계획 수립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자체의 준비 정도와 쟁취할 수 있는 학습 시간 및 학습 자료의 내용과 분량을 정확히 조사 장악한 기초 우에서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만 실천성 있는 과학적인 계획으로 될 수 있다.

일단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를 끝까지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망 계획에 기초하여 월별 또는 주별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 날 학습은 그 날로 수행하는 생활 질서와 태도를 확립하고 매일, 매주 총화를 지으면서 이악하게 노력해야 한다. 만일 특별한 불의의 사정으로 학습 계획을 달성하지 못 한 날 또는 주간의 학습은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반드시 회복하는 강의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생활 조직을 잘 하여 학습 시간을 최대한으로 짜내야 한다.

학습에서 능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습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쟁취하는가 하는 것이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학습 시간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일과를 조직하고 그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하루 24 시간을 크게 나누면 1, 식사, 수면, 휴식을 비롯한 생활 처리 시간, 2, 로동 시간, 3, 학습 시간, 4, 사회 사업을 비롯한 기타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세밀한 일과를 작성하고 학습 시간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은 학업을 전업으로 하는 학생들은 물론 일하면서 배우는 모든 청년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생활 상 요구이다.

우리는 일하면서 학습 생활을 잘 조직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례를 많이 알고 있다.

회천 공작 기계 공장 로동 청년들은 공장 대학에서 배우면서 많은 시간을 얻어 내여 학습함으로써 계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함남도 북청군 오명 협동 농장 한 문빈 동무를 비롯한 민청원들도 분초를 아껴 학습에 전심함으로써 농산 기수로, 기사로 발전하고 있으며 훌륭한 창의 고안과 발명으로 농업 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생동한 모범들은 바쁘다는 구실로 학습에서의 태공을 변명하는 일부 동무들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청년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과학적인 일과 조직으로 시간의 예비를 찾아 내여 청춘의 정열을 학습에 기울이고 있는 이들의 모범을 본 받아야 한다.

일하면서 배우며 일체 작업 과정, 생활 과정이 학습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일부 청년들은 주간 학교나 대학에 가는 길만이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그릇된 인식이다.

우리 당은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을 후대 교육의 일관한 방침으로 견지하여 왔다.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청소년들은 원쑤들과 싸우면서 배웠고 배우면서 싸웠으며 일하면서 배웠고 배우면서 일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이 경험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교육 체계의 확립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도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하였으며 모든 근로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의 교육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의 찬란한 교육 발전과 문화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튼튼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근로 청년들은 배운 지식을 반드시 생산 로동에 적용하며 생산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학습에서 해명하고 일반화함으로써 검열된 지식으로 쓸모 있는 공고한 지식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학습 성과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고 훌륭한 로동 경험이 학습 의욕을 더욱 고무하도록 하며 공부도 잘 하고 일도 잘 하는 일'군으로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조그만한 토막 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학습에 리용하며 분초를 다투어 학습하는 습성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짧은 휴식 시간에도 단어와 공식, 리론적 명제들을 외울 수 있으며 기계를 돌리면서도 기계의 구조와 원리, 그 작용을 연구하고 그 효률의 제고 방도를 탐구할 수 있다.

이리하여 모든 작업 시간, 생활 과정이 학습 과정으로 된다면 학습에서 날마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학습에서 자체 통제를 강화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상 도덕적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에서도 자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체 통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경험적인 것은 학습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학습 일지를 복잡하게 만들면 부담으로 된다. 그러므로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던가 또는 학습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학습한 내용과 분량을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리하여 매 시간 당 학습 능률을 대비하며 매일의 학습 분량을 대비하면서 학습해 가면 스스로 분발하게 되며 지난 시간보다 이 시간에, 어제보다 오늘에, 또한 전달보다 이 달에 학습 성과를 더욱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이 공부할 예비를 찾아 내기 위해 머리를 쓰게 되며 더욱 창발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는 좋은 방도의 하나이다.

자체 통제를 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학습에서 동무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학습에서 동무들의 모범을 배우며 앞선 동무를 따라가며 앞서 가기 위한 경쟁 의식은 우리의 학습을 크게 고무한다. 앞선 동무들의 학습 성과와 경험을 배우면서 따라 가는 것은 학습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도이다. 물론 남의 성과와 모범을 그 대로 기계적으로 모방하여서는 안 된다. 그 경험의 우결함을 갈라 내며 그 성과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내며 자기 실정에 맞도록 그 경험을 섭취하여야 한다. 동시에 학습에서 뒤떨어진 동무에게 온갖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적 경쟁의 주요한 측면이며 진정한 동지애의 구현이다. 더우기 남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기가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자기 지식이 더욱 공고 심화되기 때문에 동무들을 방조하는 과정은 역시 자신의 훌륭한 학습 과정인 것이다. 남에게서 얻을 것만 생각하고 동무들에게 허심하게 나눌 것을 꺼린다면 그것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품성과 배치되는 것이며 옳은 학습 관점과 모순되는 것이다.

민청 단체는 일상적으로 매개 민청원들의 학습에 신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매개 청년들은 자기의 학습에서 항상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년들은 학습 계획을 세워 조직의 방조를 받으며 학습 계획은 철저히 집행하며 학습 결과를 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누구나 조직에 의거하며 학습에서 제기된 시간 문제, 학습 자료 문제, 장소 문제, 학습 지도자 문제 등을 해결하며 학습 경험을 교환하며 학습 기풍을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남조선 청년들의 진로는 자주, 자립의 길이다

계 서 호

오늘 미제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 청년들의 사회 정치적 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남조선 청년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박탈 당하고 있으며 수백만의 청장년들이 일터와 농토를 빼앗기고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고 있다. 신성한 학원은 미군의 군사 련병장으로, 모리배들의 홍정판으로 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증대되는 각종 잡부금과 공납금이 향학열에 불타는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가증되는 경제난과 민생고에 못'이겨 남조선의 많은 청년들 속에서는 원대한 리상과 광활한 희망으로 꽃 피여야 할 청춘 시절에 제 손으로 제 명을 끊는 참극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찌 하여 오늘 남조선 청년들이 이처럼 무서운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되였으며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였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에 기인되며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이 외세 의존에 매 달려 온 반인민적 매국 정책에 기인된다.

그 어떤 국가나 민족을 막론하고 나라의 자주권이 없이는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며 생존의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세계 약소 민족들이 장구한 기간에 걸친 피의 투쟁에서 얻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다.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되고 있는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이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말살 당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며 《원조》한다는 기만적 구호 밑에 모든 권력을 장악한 최고 통치자로 행세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저들의 노예로 얽매여 놓고 있다. 남조선 《정권》은 실제 상 민족의 외상으로 분장된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에 불과하며 철두 철미 미제에 예속된 한낱 괴뢰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정부》는 미군의 비호 없이는 하루도 존속할 수 없으며 미군의 지시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 비밀이 아니다. 따라서 남조선 괴뢰 정권의 모든 정책은 례외 없이 워싱톤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남조선에 주둔한 현지 사환'군들의 감시 밑에 집행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군사 통수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60여만에 달하는

남조선 《국군》은 미제의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조달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태 하에서 그 어떤 정치적 자주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자립의 기초로 된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자립적인 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독립도 할 수 없으며 건국도 할 수 없으며 살 수도 없다. 경제에서의 외세 의존은 기필코 정치에서의 외세 의존을 가져 오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을 가져 온다.

오늘 남조선은 정치, 군사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제에게 완전히 예속되여 있다.

남조선 《정부》의 재정 예산 세입 자체가 근 절반이 미국 《원조》에 의한 《외자》로 충당되고 있으며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에서 공개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남조선 《정부》는 예산 편성으로부터 그 지출은 물론 그 지출 항목의 일시적 융통까지도 미국 감독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제는 허울 좋은 《원조》의 미명 하에 자국에서 팔다 남은 잉여 소비 상품들을 범람시켜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 시장으로 전변시켰으며 민족 산업을 계통적으로 파괴 몰락시켰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자국의 광물질 비료를 끌어 들여 농토를 피폐케 하고 병충해를 만연시켰으며 잉여 량곡을 끌어 들여 농촌 경리를 파탄시킴으로써 원래가 곡창이던 남조선을 해마다 500만~700만 석 이상의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무서운 기근의 땅으로 전변시켜 놓았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국의 휘발유 공급이 3 일 간만 중단되여도 모든 운수 수단과 광산들이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고 미국 잉여 농산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방직, 식료품 공업 등 남조선 공업의 60%가 생산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러한 예속 경제 하에서 생존의 권리를 얻는다는 것은 마른 나무에서 꽃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황당한 일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물가가 천정 부지로 폭등하고 있고 로력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 600여만의 실업 및 반실업자 대군이 거리를 방황하며 아사자,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는 모든 참화도 바로 남조선 경제의 이러한 예속성으로부터 온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확립한 공화국 북반부의 사정은 이와는 판이하다.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쥐고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개척하였다.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들의 총의에 의하여 인민 주권을 수립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민주주의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숙청하고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치였다. 전후 우리는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전쟁으로 인하여 여지 없이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였으며 푼전을 아껴 가며 우리 내부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북반부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 힘으로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생산하며 새로운 공장 기업소를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우리의 이 튼튼한 자립 경제는 정치적인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완전한 평등과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예속되여 있지 않으며 더우기 경제적 관계로 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걷는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력사적인 전변이 일어 나고 있으며 민족적인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은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자기의 재능과 기능에 따라 마음껏 일하고 배우고 있으며 그 어떤 착취와 압박에 대해서도 모른다. 일제 때 대학이란 단 하나도 없었고 230만의 문맹자가 있었던 공화국 북반부에 오늘은 97 개의 대학을 비롯한 9천여 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255만 여 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수업료도 없고 국가로부터 높은 장학금과 철따라 교복까지 받고 있다. 로동과 학습과 생활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과 부러움도 없으며 희망에 가득찬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공화국 북반부 청년들의 행복한 처지이다.

남북반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과 모든 사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오직 민족 자주의 길만이 자유와 독립의 길이며 남조선이 자주, 자립하는 길이 오늘의 참담한 처지에서 벗어 나는 유일한 출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 중에서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자주, 자생, 자결, 자립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그러면 남조선이 진정으로 자주, 자립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 자주권을 유린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야 한다. 외래 침략 군대를 자기 나라에 두어두고는 어떠한 독립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미제를 몰아 낸 후 진정한 민주주의적 자유 선거에 의하여 극소수의 친일, 친미 주구들을 제외하고 로동자, 농민, 병사, 청년 학생, 지식인 및 민족 자산 계급 등 광범한 각계 각층을 련합한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자주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만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자주, 자립하기 위하여서는 튼튼한 자체의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남북 합작은 남조선에서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남북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못해낼 일이 없다. 나라의 절반 땅인 공화국 북반부에 남조선 경제를 복구할 튼튼한 경제 토대가 있으며 그를 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외세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가? 력사는 일찌기 외래 침략 세력에 의존하여 민족적 독립을 달성한 전례를 알지 못 한다.

우리는 외국의 간섭이 없이 우리 힘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조선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며 장구한 기간 외래 침략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의 독립 국가를 지켜 온 용감하고 고매한 기개를 가진 민족이다. 조선 인민은 능히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제기되고 있다.

남조선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세에 의존하여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인가? 남조선은 망국 로선과 단호히 결별하고 제국주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서야 하며 민족 내부에서 재생의 힘을 찾아야 한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외세를 배격하고 자유와 민주를 절규하며 쓰러진 4.19의 선렬들에게 부끄럼 없이 대답하며 우리의 후대들 앞에서 량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두다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밑에 민족의 자주 자립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 대렬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라!

명작감상

최 서해의 《박돌의 죽음》에 대하여

강 숙희

단편 소설 《박돌의 죽음》(1925)은 1920 년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신음하는 조선 인민의 생활 현실과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항 의식의 장성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 준 작품으로 오늘까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가난한 탓으로 해서 억울하게 죽는 한 소년의 죽음에 대하여 보여 준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제도에서 진실하게 살려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인 박돌이가 어떻게 사회의 버림을 받고 억울하게 죽어 가는가를 생활적인 구체성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 제도의 모순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높고 푸른 하늘에 야광주를 뿌려 놓은 듯이 반짝이는 별들이 고요한 대지를 향하여 묵시를 보내고 나무'잎에서 이슬 돋는 소리조차 고요한 자정이 훨씬 넘는 밤, 남자인지 녀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 희슥한 그림자가 좁은 골목으로 허둥허둥 뛰여 가고 있다. 뛰여 오던 그림자는 잿'빛 같이 보이는 커다란 대문 앞에 이르러 대문에 탁 실린다.》…

이것이 작품의 허두이다. 뛰여 간 사람은 누구이며 그는 무엇 때문에 어디로 찾아 갔는가? 그에게는 어떠한 급한 일이 생긴 것일가? 작가는 이러한 허두 묘사를 통하여 긴박한 사건에로 독자들을 안내하며 작품의 첨예한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둥지를 틀고 앉은 괴물 같이 보이는 높은 대문에 쭉— 그인 룡마루 선이 푸른 하늘을 치받고 있는 커다란 기와집, 그 앞에 황겁하게 나타나 문을 밀고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애걸하는 애처로운 녀인의 모습은 그대로 작품의 갈등을 말해 준다.

이 녀인은 바로 작품의 주인공인 박돌이의 어머니이며, 그 집은 의사 김 초시의 집이다.

끼마다 갑자 몇 알을 삶아 조석을 이어 가는 박돌이네는 지난 밤 주인'집에서 버린 문고등어 대가리를 주어다 삶아 먹었다. 하도 먹고 싶어서 주어다 먹은 것이 병이 될 줄이야…

박돌이는 구토 설사를 쉴새 없이 하면서 배를 움켜 잡고 신음한다. 갑자기 생긴 병은 늦출 줄을 모르는 무서운 기세로 시시 각각 소년의 생명을 위협하고 들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어 밤'중을 무릅쓰고 의사 김 초시 집을 찾아 갔다.

잠에서 깨여난 김 초시 부처는 박돌 어머니를 반가와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무리 애걸하지만 그의 빈 주머니를 진너다 보는 김 초시는 가 보아 주기는 커녕 약 한첩 지어 주지 않는다.

작가는 의사와 박돌이 어머니와의 대화 장면을 통하여 김 초시의 수전노적 형상을 높은 예술적 필치로 창조하면서 착취자들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예리하게 폭로한다.

박돌이 어머니의 절박한 사정에는 조그마한 반응도 없이 약 한첩 값만 타산하고 랭정하게 박대해 보내는 초시의 모습은 독자들의 끝없는 증오를 자아낸다.

《제발 살려 줍시오 네? 그 은혜는 뼈를 갈아서라도 갚아 드리오리! 네, 어서 가 봐 주오.》

《글쎄 못 가겠는 걸 어찌겠소? 이제 바람을 쏘이고 걷고 나면 죽게 앓겠으니…남을 살리자다가 제 죽겠소.》

어머니는 약이라도 지어 달라고 비두발괄한다. 그러나 초시는 약도 못 지어 주겠다고 딱 짜른다.…

자기와 자기의 리익 외에 아무 것도 모르는 리기주의적이며 탐욕적인 부르죠아 륜리 도덕관으로 교양된 김 초시의 모습은 이러하다.

이러한 인간이 비호를 받고 권세를 부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하게 살아 가려는 근로 인민들이 얼마나 험악한 생활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작가는 바로 이러한 인민들의 생활에 깊이 침투하면서 그들의 울분과 반항에 대하여 정열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늘 같이 믿고 왔던 의사에게서 아무 것도 못 얻어 가지고 돌아 서는 어머니는 벌써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보는듯 했고 앞이 캄캄하였다.

불쌍한 박돌이는 무서운 고통 속에 몸부림을 하다가 애통하게 자기를 부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그 밤이 새기 전에 죽고 말았다.

《박돌아! 애고 내 박돌아! 너는 죽었고나! 약 한첩 침 한대 못 맞아 보고 너는 죽었고나! 에구 하느님도 무정하지… 애비 없이 온갖 설음을 다 맡아 가지고 자라다가 열두 살이나 먹고서… 에구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항상 배를 곯다가…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죽다니?》

먹고 싶다던 굴을 못 먹인 것, 학교에 가고 싶다던 것을 목구멍이 원쑤돼서 못 보낸 것…

모든 회상이 어머니의 가슴을 메여지게 하였다.

어제까지 눈앞에 서물거리던 아들이 죽다니 거짓말도 같고 꿈 속 같기도 하다. 그러나 박돌이는 이미 죽었다. 아무리 불러도 고요히 누워 있다.

…자기가 발 붙이고 잡았던 모든 희망의 줄은 툭 끊어져 버리고 천길 만길의 구렁 속으로 떨어져 들어 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다.

박돌이가 죽은 것은 가난하고 권세 없는 집에 태여 났기 때문이였다. 박돌이와 그 어머니의 형상은 1920 년대 일제 통치 하의 최하층에서 허덕이던 우리 나라 근로 인민의 공통된 운명이며 모습이기도 하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고 권세 없는 사람은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생의 권리조차 가지지 못 한다. 박돌이의 일가는 이런 사회에 의하여 희생된 것이다.

수천만의 이런 사람들을 희생시켜 극소수의 착취자들이(김 초시와 같은) 사치와 부화로 살아 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하루 바삐 전복되여야 한다. 그것은 자기가 희생시킨 피착취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갖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돌이 어머니의 복수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이러한 반항 의식을 보여 준다. 그는 자기 박돌의 목을 매여 끌고 가는 살이 피둥피둥하고 얼굴이 검붉은 악마를 따라 가서 그의 멱살을 틀어 잡고 낯을 물어 뜯는다. 그 악마는 의사 김 초시이다.

박돌이 어머니는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박대하는 《한심한 세상》에 대하여 항거해 나선 것이다. 그는 물론 외로웠으며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더는 그 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의 정당한 행동이였다. 그러기에 김 초시의 집 앞에 모인 군중들은 박돌이 어머니를 동정하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인민 대중의 계급 투쟁의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그 사회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락인하였다.



인도네시아

량 윤기

인도네시아는 아세아 대륙과 호주 대륙 사이,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마트라, 쟈바, 보르네오, 셀레베스, 서부 이리안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섬들로 구성되여 있다. 인도네시아의 면적은 190만 4,345 평방키로메터이며 인구는 9,708만 5,348 명(1961. 12)이다. 이 나라는 다민족(인도네시아인, 중국인, 말라이인, 비률빈인, 파프아인 기타)국가이며 주민의 90%가 회교도이다.

인도네시아는 15 세기 말엽으로부터 포도아, 서반아 및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았으며 17 세기부터 350 년 간은 화란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시기에 화란 식민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를 일본 군국주의에 넘겨 주었다. 그리하여 1942~1945년 기간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하고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수립된지 얼마 안 되여 영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군대의 무장 해제를 구실로 자기 군대를 인도네시아 령토에 상륙시켰으며 후에는 이 점령 구역을 화란에 넘겨 주었다. 화란 식민주의자들은 영, 미 제국주의자들의 비호 하에 계속 인도네시아 인민을 공격하였으며 1947년과 1948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적인 식민지 전쟁을 일으키고 청소한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삼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화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단호히 궐기하였으며 각지에서 유격전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있을 때 반동적인 핫타 정부는 미제의 조종 하에 있는 련합국 3 국 위원회의 주선 하에 1949년 말에 화란 식민주의자들과 굴욕

작가 최 서해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하여 이와 같이 악덕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 사회의 페절을 요구하였고 그를 위한 투쟁으로 인민 대중을 불렀다.

오늘 우리는 조상의 념원이 활짝 꽃핀 사회주의 조국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저마다 무병장수하고 행복을 마음껏 노래 부르며 살고 있다. 우리는 《약값》과 《치료비》라는 말을 잊은 적이 오랬고 《전염병》의 피해를 알지 못 한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남녘 땅에는 오늘도 김조시보다 더 악착한 《의사》들이 병원을 독점하고 근로 인민들은 병원 문 앞에도 못 가 보고 죽어 가고 있다. 박돌 어머니의 처지보다 더 절박한 처지의 어머니들이 남반부의 거리마다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 많은 소년들이 박돌이처럼 죽어 가고 있다.

우리는 《박돌의 죽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늘의 행복을 베풀어 준 당과 조국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하여, 남녘 땅의 수 많은 박돌이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기 위하여 더욱더 자기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적이고도 불평등한 《원탁 회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화란의 련방 내에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허여하는 화란. 인도네시아 련방이 형성되였다. 그 후 화란 식민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군사 및 대외 정책을 여전히 장악하고 서부 이리안을 계속 강점하였다.

《원탁 회의 협정》은 애국적인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분격을 불러 일으켰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50년 8월 인도네시아 국회는 련방제를 페기하고 통일적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서부 이리안은 여전히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있게 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1954년부터 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자기 령토의 불가분의 한 부분인 서부 이리안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애국적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전 세계 인민들의 지지 밑에 서부 이리안을 해방하기 위한 군중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서부 이리안 내부에서도 미제와 화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폭동과 무장 투쟁이 일어 나 서부 이리안의 여러 지역을 해방시켰다. 이에 질겁한 화란은 인도네시아와의 《평화적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62년 8월 15일에는 드디여 서부 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양도할 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리하여 1963년 5월 1일에 인도네시아 령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서부 이리안이 화란 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되였다.

오늘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적 진보를 성취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영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고 주권 기관은 림시 인민 협상 회의이다. 림시 인민 협상 회의는 협조 국회 의원, 각 지역 대표, 직업별 각 단체 대표들로서 구성되며 여기에서는 헌법 제정, 대통령 선거, 중요 방침들을 결정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권을 가지지 못 하는 단순한 립법 기관인 협조 국회가 있다. 여기에서 채택된 법안은 대통령의 비준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자문 기관으로서 최고 자문 리사회가 있다.

현 내각은 수카르노 대통령을 수상으로 하여 8 개 부문과 34 명의 각료로 구성되였다. 그러나 내각 구성 문제에 있어서 수카르노 대통령이 제기한 대로 아직도 《나사콤》(《나사콤》이란 민족주의자, 종교계,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의 략칭이다) 협조가 철저하게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바 현 인도네시아 내각에는 겨우 2 명의 공산당원이 무임소상으로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의도 대로 균형 대표제에 립각하여 내각이 구성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외 정책은 뿔럭 불가담과 적극적인 중립,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는 오래전부터 로조 대표, 기타 사회 단체 대표들과 문화, 예술, 체육 단체들이 호상 왕래하고 있으며 1961년에는 총 령사 관계가 설정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조선 인민의 반미 투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1962년 8월 쟈카르타에서 진행된 제 4 차 아세아 경기 대회 이후 수카르노 대통령은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네포)를 발기하였다. 이 제의는 신흥 세력 즉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긍정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그의 준비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지난 11월 10일부터 쟈카르타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51 개 국의

참가 한에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가 진행되였다. 《가네포》의 성과적 진행은 체육 분야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이 마음 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독립과 진보를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의 선두에는 장구한 기간 가렬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서 있다. 1920년 5월에 창건된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오늘 자기 대렬에 250만의 당원을 망라하고 있다.

오늘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인도네시아 인민의 혁명 투쟁을 능숙하게 령도하고 있으며 현대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모스크바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며 사회적 진보를 성취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인민의 투쟁, 영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에 의하여 조작된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에서는 외래 독점 자본이 아직도 적지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봉건적 관계들이 존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 공업의 발전은 미미하며 수출을 위한 농업 생산과 유용 광물의 채굴이 이 나라 민족 경제의 특징으로 남아 있다.

이 나라의 중요 농산물은 천연 고무, 끄쁘라, 키니네, 차, 사탕, 커피, 코코아 등이다. 특히 천연 고무 생산은 년산 73만 톤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1 위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공업은 장기간에 걸친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외국 자본의 지배로 말미암아 현재에도 석유, 주석광 채취 등 채굴 공업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규모가 적은 경공업 기업소들이다. 채굴 공업에서 중요한 것은 원유, 주석, 복키 싸이트, 석탄, 만강 등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 아세아 최대의 원유 산지로서 자본주의 세계 원유 생산량의 10 %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국 자본의 세력 범위를 적극 제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통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수출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생고무(수출 총액의 47.3 %), 원유(수출 총액의 27 %) 주석, 보키 싸이트와 열대 농산물이며 수입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건설 재료, 기계류, 운수 수단 등과 직물을 비롯한 각종 경공업 제품들이다.

오늘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라의 식민지적 경제 구조를 민족적 자립성을 가진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외래 자본의 수중에서 경제적 통제권을 탈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8 개년 계획(1961~1968)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전화 (38—58, 83—85)
1963년 11월 16일 인쇄 1963년 11월 21일 발행
(값 35 전) 7—330690



《묘향산》

금수강산 삼천리에 명승지도 많거니와
묘향산을 아니보고 그 어데를 말할소냐
천산이라 깊은 골짝 벗님 따라 오를사록
웅장하고 귀묘함이 천하 명승이로구나